

호남인의
영남인에 대한 지역감정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사회학과

김진혁

호남인의
영남인에 대한 지역감정연구

지도 유 석 춘 교수

이 논문을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1989 년 12 월 일

연세대학교 대학원


사회학과

김 진 혁

김진혁의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 유 석 준 

심사위원 김 영 인 

심사위원 김 용 학 

연세대학교 대학원

1989년 12월 일

차 례

논문 개요

I. 서론	1
1. 기존 연구	2
2. 문제 제기	6
3. 연구 방법	12
1) 자료의 성격	12
2) 호남인 집단-호남인에 거부감을 보이는 집단의 구분	13
II. 지역과 계층 구조	15
1. 계층 척도의 구성	15
2. 지역별 계층 구조	17
3. 서울 거주민의 출신지별 계층 구조	22
4. 소 결 (小 結)	32
III. 호남인에 대한 사회적 차별	38
1. 지역간 거부감의 전반적 양상	38
1) 호남인에 대한 타 지역인의 거부감	38

논문개요

이 논문은 최근 한국사회에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된 지역갈등을 전국사람의 호남인에 대한 지역갈등과 호남인의 영남인에 대한 지역갈등으로 구분하고 그 중 후자의 원인을 체계적으로 설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각 지역민 및 출신도민 별 계층구조를 분석하고, 호남인에게 가해지는 사회적 차별의 양상을 검토한 뒤 선거와 광주항쟁이라는 정치적 요인의 역할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시도의 이유는 ; 첫째, 호남인과 공통적인 경제적 차별을 받았다고 생각되는 충청, 강원 출신인의 경우 경제적 차별감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되는 지역감정을 나타내지 않기 때문에 불평등의 구조화에 대한 사회학적 개념인 "계층"개념을 동원하여 각 지역간의 실제 경제적 차별 여부를 살펴보려는데 있었고; 둘째, 이러한 검토를 통해 호남, 충청, 강원 출신인들간에 계층 구성상 차이가 미약하다는 사실이 발견된다면 경제적 차별감만으로는 호남인의 영남인에 대한 적대감을 설명할 수 없으므로 다른 요인의 하나인 호남인에 대한 전국적인 사회적 차별을 살펴 보아야 하였기 때문이며; 마지막으로 호남인이 경제적, 사회적 차별을 받고 있다고 할 때 유독 영남인에 대해서만 적대감을 보이는 이유가 설명되지 않으므로 지역갈등과 관련된 정치적 요인들을 살펴보아야 한다는 생각에

서 있다.

분석결과 호남인은 강원, 충청 출신인과 함께 하위 편향적인 계층 구조를 보여주며 “불신”이라는 전국적 편견을 받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영남인에 대한 적대감과 갈등이 본격화 된 것은 선거를 통해 호남인이 느끼는 경제적, 인사정책적, 사회적 차별감이 표출되었기 때문이며 광주항쟁이라는 사건이 영남인에 대한 지역감정을 촉발시켰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호남인의 영남인에 대한 지역감정은 호남인에 대한 타 지역인의 그것처럼 인성을 문제시하는 편견이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적 차별감에 근거를 둔 불만의 변형된 표현이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호남인들은 현실인식에 있어서도 타 지역인에 비해 훨씬 진보적인 태도를 보여주며 변혁운동의 하나인 학생운동에 있어서도 상대적으로 높은 참여율을 보여준다.

결국 호남인과 같이 경제적, 사회적 차별을 받고 자기집단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경험하는 사람들에게는 그에 대한 반응으로서 자기 집단 탈출(서울로의 호적이동), 자기 집단에의 충성 (선거에서의 자გი지역 후보에 대한 편파적 지지), 현실에 대한 저항 (진보적 변혁운동에의 높은 참여도) 이라는 세 가지 선택이 나타나며, 호남인에게 이러한 선택이 모두 높게 나타난다는 사실은 한국사회의 변동에 있어서 지역이 갖는 중요성과 함의를 잘 드러내 주는 것으로 생각 된다.

진, 1989: 17; 유석춘, 1989: 19-21) 다양한 형태로 제기되고 있으며 새로운 쟁점들을 부각시키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지역갈등”은 그 자체로서 중요성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한국사회에 내재하는 갈등의 성격을 파악하고 갈등에서 파생되는 변혁의 방향을 예측하는데 있어 중요한 함의를 지니고 있다고 생각한다.

1. 기존 연구

한국사회의 지역갈등에 대한 지금까지의 연구는 크게 사회학과 정치학 그리고 심리학 분야에서 이루어 졌다. 사회학과 정치학에서의 연구가 주로 지역갈등의 역사와 갈등원인으로서의 구조적 측면에 집중되었다면, 심리학에서의 연구는 “편견”이라는 사회심리적 측면에 집중되었다고 할 수 있다. 전자의 연구분야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역갈등의 역사적 배경에 관한 연구와 지역과 경제격차, 계층, 정치행위, 엘리트 충원, 인구이동, 연고주의, 사회운동사이의 관련성을 규명하려는 연구 등을 포함한다. 한편 후자의 연구분야는 주로 미국학자의 이론을 중심으로한 편견이론 소개, 지역간의 호오도(好惡度), 각 지역민에 대한 편견의 내용, 편견의 세대전승, 심리학적 입장에서의 지역갈등 원인등으로 세분해 볼 수 있다.

이와같은 지역연구의 결과로부터 얻어진 몇 가지 공통적인 견해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a. 전통사회에서 구체적인 지역간의 갈등은 나타나지 않으며 지배층의 저술 (혼요십조, 택리지, 팔도평 등) 을 통해 고정관념이나 편견의 형태로 나타날 뿐이다. 따라서 일반백성들 사이에서 적대적 지역감정과 갈등이 확산되었다는 증거는 없다² (김만홍, 1987: 17; 김문조, 1989: 97).

b. 지역갈등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한 것은 경제개발 계획의 본격적 착수 이후 즉 제 3 공화국 이후라고 볼 수있다 (이상우, 1985: 328; 김만홍, 1987: 17; 김익기, 1989: 25)

c. 지역민간의 거부감은 호남인³이 영남인에 대해 느끼는 거부감과 전라도를 제외한 타 지역인이 호남인에 대해 느끼는 거부감으로 양분 된다 (김만홍, 1987: 51; 김진국, 1988: 236; 나간채, 1989: 127; 김혜숙, 1988 등). 따라서 지역갈등의 내용은 상식적으로 알려진 영호남간의 거부감 뿐만 아니라 타 지역인의 호남인에 대한

2. 그러나 송북은 전라지역에 있어 1)조선조에 조세가 집중 부과되었고, 2)지주제가 급속히 형성되어 고도의 착취를 자행했고, 3) 중심지 이동로의 교통상 편리로 인하여 중앙으로의 보다 많은 인구이동이 일어났으며 이로 인하여 사회적 차별이 야기될 수있음을 추단하고 있다.(송북, 1989 : 48-50)

하지만 인구이동이나 차별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된 증거는 없다. 단지 엘리트들 사이에서의 중앙(서울)과 지방간의 갈등을 사료를 통해 지적할 뿐이다. (윗 글, 46-47)

3. 호남인이라는 용어는 전라도가 고향이고 전라도에 살거나 다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뜻한다. 이는 영남인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또 호남인 (영남인) 과 같은 의미로 전라출신인 (경상출신인)이라는 용어도 사용된다.

거부감도 함께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d. 전국사람들의 호남인에 대한 지역감정은 인성(人性)을 문제시하는 심리적 편견의 양상을 띄는 반면, 호남인이 영남인에 대해 느끼는 지역감정은 경제적, 정치적 차별감과 사회적 불만이라는 성격을 갖고있다 (김진국, 1988: 237; 문석남, 1988: 7; 김만흠, 1987: 76; 나간채, 1989: 137).

e. 호남인의 경우 정치, 경제적 차별에서 비롯된 피해의식과 소외감이 여러 차례의 선거과정과 80년대 초의 광주항쟁등을 통해 영남인에 대한 적대적인 지역감정으로 형성되었다고 지적되고 있으며 (나간채, 1989: 138; 안신호, 1988: 52; 조경근, 1987: 197 등) 영남인의 경우 호남인으로부터의 도전에 대한 견제심리와 방어의식 및 전통적 편견과 선거과정등을 통해 호남인에 대한 지역감정을 갖게 되었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나간채, 1989: 138; 김만흠, 1987: 72; 배규한, 1989 :19).

이상과 같은 잠정적 연구성과는 지역갈등의 실체에 대한 인식에 어느 정도 공헌했다는 평가와 더불어 몇 가지 한계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먼저 호남인에 대한 편견이 대중적으로 확산된 시기를 파악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 역사적 자료는 지배층의 저술에서 발견되는 고정관념과 엘리트들간의 갈등(당쟁)을 보여줄 뿐이며 대중적 편견의 유무는 확인할 수가 없다. 단지 최초의 지역편견 연구자인 이진숙에 따르면 호남인에 대한 고정관념은 "간사하다"라는 부정

적 내용이 일반적이라는 사실이 보고되고 있다 (이진숙, 1959: 82).

이로 미루어 볼 때 호남인에 대한 편견의 근원은 최소한 1950년대 까지로 그 시발점을 상정할 수 있으나 1950년대에 편견을 기반으로 한 지역간 갈등이나 차별이 사회적으로 문제시된 경우는 없었다. 이와같은 사실은 지역갈등이 전라도와 경상도 그리고 전국과 전라도의 두 가지 차원에서 나타난다는 기존 연구결과를 수용할 때 전국 사람들이 호남인에 대해 느끼는 거부감을 설명하려는 시도에서 하나의 한계로 작용한다.

다음으로 지역갈등의 원인설명에 관하여 몇 가지를 지적할 수 있겠다. 그것은 첫째, 대부분의 설명이 여러 요인들의 나열이나 추측에서 그치고 있고 체계적인 기제 및 근거, 그리고 요인들 사이의 상호관계에 대한 분석이 미흡하다. 예컨대 영남인의 호남인에 대한 지역감정을 설명할 때 “기득권자의 자기방어양식” “도전세력에 대한 견제심리” 등으로 표현하지만 (김만홍, 1987: 72 ; 나간채, 1989: 138) 실제로 영남인이 그러한 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지표나 경험적 근거가 제시되지 않으며 또한 그것이 다른 요인들과 어떻게 맞물리고 있는가에 대한 언급도 없다.

두번째로, 지역갈등이 특정지역에 대한 편견이나 적대감을 근거로 한다고 할 때 호남인과 기타 지역인이 갖는 지역감정의 원인을 분리하여 각각 설명하는 것이 타당하다. 왜냐하면 앞서 언급했듯이 이들 지역간에 지역감정의 내용이 다르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

존의 연구는 이 점에 관해 합의가 이루어져 있지 않으며 따라서 원인설명도 집단을 구분하여 설명하는 것과 포괄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혼합되어 있다. 이러한 혼합은 지역격차, 불균형, 역사적 편견, 정치적 기반등과 같은 구조적이고 객관적인 배경 설명과 이 배경이 구체적으로 특정지역에 어떻게 작용하여 특정한 지역감정(갈등)을 형성하였는가라는 "행위자"나 "지역갈등" 당사자"의 원인설명으로 구분될 필요가 있다. 다시말해 지역갈등의 공통적 배경이 되는 구조적 기반에 대한 원인설명과 특정지역이 갖는 지역감정의 독특한 내용에 대한 원인설명(예컨대 영남인이 갖는 지역감정의 내용과는 구분되는 호남인의 지역감정에 대한 형성원인 설명)은 구분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결국 원인 설명에 있어서 호남인의 영남인에 대한 지역감정/전국인(호남인 제외)의 호남인에 대한 지역감정을 구분하고 각각에 대한 체계적인 인과적 설명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이 연구는 전자의 경우에만 초점을 두어 그 원인설명을 시도할 것이다.

2. 문제 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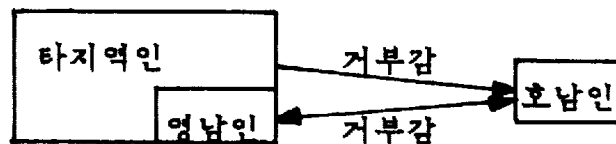
이 연구의 목적은 호남인이 영남인에 대하여 느끼는 지역감정과 지역 갈등을 인과적으로 설명해 보려는데 있다. 이러한 시도의 이유는 앞에서 밝혔듯이 체계적인 인과적 설명에 터한 지역연구가 아

직 미진하다는 점에 있으며 이 연구의 전제가 되는 것은 지역감정 (혹은 지역갈등) 의 내용이 전국인의 호남인에 대한 지역감정과 호남인이 영남인에 대해 느끼는 지역감정으로 구분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다.⁴

앞서 밝혔듯이 이 글의 목적은 이러한 지역갈등의 한 부분 즉 호남인이 영남인에 대해 느끼는 지역감정을 설명하는 것에 국한된다. 호남인의 영남인에 대한 지역감정을 설명하기 위하여 기존연구에서 지적된 요인들을 인과적 측면에서 재구성하여 문제를 제기한다면 다음과 같다.

1) 많은 연구자들은 한국사회에서 1960년대 이후 지역간 경제격차가 진행되어 왔음을 보고하고 있다⁵ (홍성웅, 1987 ; 박동운, 1988 ; 문석남, 1989등). 경제격차의 내용은 경상도가 1960년 이래 경제성장의 수혜지역, 전라도는 비수혜지역이라는 것이며 이를 확대하면 서울, 경기, 경상은 수혜지역이고 강원, 충청, 전라는 비수혜지역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이 지역 갈등과 관련하여 취급

4. 이 구분을 도식화 하면 지역갈등의 양상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5. 그 내용은 주로 경제지표를 사용한 지역경제 격차에 관한 것이다. 예컨대 지역별 제조업 분포, 산업고도화율, 지역별 주민소득, 지역별 일인당 예금액 등이다.

될 때 제기되는 질문은 “충청, 강원도 비수혜지역인데 왜 전라지역에서만 경제적 차별감이 높게 나타나는가? (유석춘, 1989: 19; 김문조, 1989: 97)” 라는 것이었다. 달리 표현하면 “호남인이 영남인에 대해 지역감정을 느끼는 것이 경제적으로 차별을 받았기 때문이라면 왜 같은 차별을 받은 충청, 강원 출신들은 영남인을 싫어하지 않는가” 라는 물음이 될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구하기 전에 우선 이 질문이 과연 타당한 질문인가를, 즉 호남, 충청, 강원 출신들은 정말로 경제적인 차별을 받았는가라는 점을 지역 및 출신도에 따른 계층구성을 통해 재확인 해 볼 것이다. 즉 지금까지의 연구에서 지역간의 경제적차 여부를 파악하는 객관적 근거로서 사용된 거시적 수준의 경제지표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불평등의 구조화에 대한 사회학적 개념인 계층개념을 동원하여 실제로 지역간 계층구성 차이가 존재하며 전라, 강원, 충청도 출신인이 서울, 경기, 경상 출신보다 하위 계층에 보다 많고 상위 계층에 보다 더 적게 분포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살펴봄으로서 각 지역민과 지역 출신인⁶의 실제 경제적 차별 여부와 위에서 제기된 질문을 확인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6. 지역민은 그 지역에서 출생했고 그곳에서 거주하는 사람을 말하며 출신인은 그 지역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그 지역에서 태어났고 그 곳에 귀속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뜻한다. 예컨대 전라도에서 태어났고 그곳에 귀속 의식이 있으며 현재 서울에 거주하는 사람은 “전라도 출신”이라고 할 수 있다. 또 전라도 출신이고 전라도에 거주한다면 “전라 지역인”이 된다. 한편 출신인은 지역민도 포함하는 개념으로 사용한다.

계층 구성을 지역적으로 분리하여 살펴봄과 동시에 출신지별로 살펴봄으로서 (예컨대 서울 거주 각 지역 출신인의 계층 분석) 출신지 귀속 의식 (예컨대 나는 서울에 살지만 전라도 사람이다 등) 을 가지고 있는 개인들의 차별감을 분석해 볼 수 있다.

2) 만약 전라, 강원, 충청 지역민과 출신인들 간에 계층 구성상 차이가 없고 다같이 하위 계층 분포율이 높다면 전라 출신인의 차별감 (지역감정) 에 대한 다른 설명이 필요하게 된다. 왜냐하면 똑같은 차별을 받은 충청·강원 출신인들은 전라 출신만큼의 불만이나 지역감정을 드러내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호남인이 강한 차별감을 느낀다면 그 이유는 경제적 차별감 만으로는 설명될 수 없으며 충청, 강원 출신이 아닌 호남출신만이 받는 차별이 무엇인가를 따져보아야 설명될 수 있다. 심리학자들은 공통적으로 전라 출신인에 대한 타 지역민들의 편견과 고정관념이 존재한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⁷ (이진숙, 1959 ; 김진국, 1977 ; 안신호, 1988 등). 이러한 거부감의 구체적 내용으로써 심리학자들은 인지적 요소인 고정관념 (stereotype), 감정적 요소인 편견 (prejudice) (김혜숙, 1988: 124) 과 더불어 행동적 요소인 차별 (discrimination) 이 호남인에게 가해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호남인에 대해 인지적, 감정적 요소의 거부감 뿐만 아니라 실제의 차별행위가 발생하는가의 여부 및 만약 차별행위가 있다

7. 이는 곧 지역갈등의 두 가지 부분 중의 하나인 전국사람들 (호남인 제외)의 호남인에 대한 거부감을 뜻한다.

면 호남인들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회적 차별경험을 겪게되는가를 살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이와같은 갈등이 호남인과 호남인에 대해 거부감을 나타내는 타 지역 출신인 사이의 갈등이라는 점에서 두 갈등 집단의 지역문제에 대한 태도와 의식 차이를 알아봄으로서 갈등의 내용과 쟁점에 접근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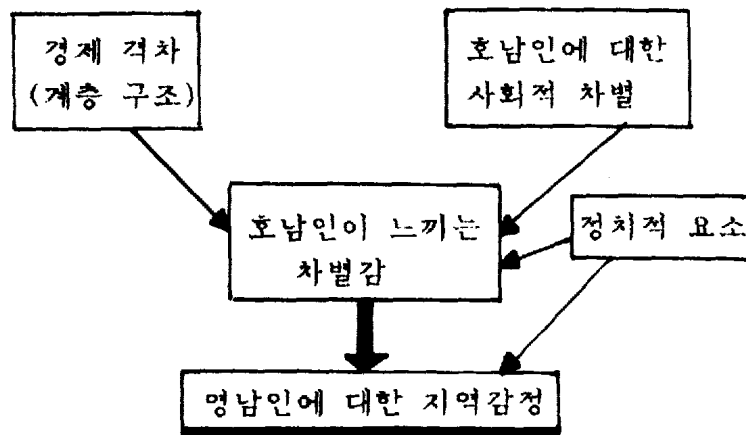
3) 만약 호남인이 전국적으로 사회적인 차별을 받는다면, 그들은 “왜 전국사람들이 아닌 영남사람들에 대해서만 거부감을 보이는가”라는 질문을 제기할 수 있다. 즉 계층구조상 호남인이 상대적으로 하위에 분포되어 있으며 전국적인 사회적 차별이 호남인에게 가해진다는 사실이 입증될 경우 그것만으로는 호남인이 유독 영남인에만 거부감을 보이는 이유를 설명할 수 없는 것이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선거를 비롯한 정치과정과 광주항쟁과 같은 정치적 사건들이 지역갈등에 어떻게 작용하였는가를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다. 다시말해 호남인이 유독 영남인에 대해서만 거부감을 보이는 이유가 경제적 차별, 심리적 거부감만으로 설명되지 않으므로 다른 요소인 정치적 요인들을 따져 보아야 한다. 또 호남인의 영남인에 대한 거부감이 단순히 “경상도 사람(의 인성)이 싫다”는 감정적인 수준의 것인가 아니면 차별감과 불만의 상징적, 대리적 표현인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이러한 고찰은 지역갈등에서 정치적 요인이 얼마나 작용하며 구체적인 적대감의 형성에 어떻게 일조하는가를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호남인이 느끼는 경제, 사회, 정치적인 불만과 차별감

이 타도 사람들 보다 강렬하다면 이들의 의식과 태도는 보다 진보적이고 변혁에 긍정적인 가능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가능성이 단순히 지역감정이 아닌 사회운동의 차원에서 분출될 가능성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는 지역이라는 하나의 축(dimension)이 한국사회변동에서 차지하는 역할과 함의를 가늠해 볼 수 있도록 해 줄 것이다.

이상의 문제제기를 도식적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1. 문제제기의 도식화



이상의 문제제기에 터하여 이 글은 호남인의 차별감을 중심으로 이들이 지역감정과 갈등을 표출하게된 요인으로 간주되는 경제적 차별, 사회적 차별, 정치적 요소들을 차례로 검토할 것이다. 또 이러한 인과적 검토를 통해서 경제적, 사회적 차별과 정치적 요인이 어떤 양상으로 어떻게 상호작용하는 지도 살펴볼 것이다. 이

를 통해서 호남인이 영남인에 대해 느끼는 지역감정 (갈등)의 원인에 대한 설명을 시도하고 그 함의를 살펴볼 것이다.

3. 연구 방법

이 글은 1988년 10월 한국일보와 한국 사회학회가 공동으로 실시한 “지역발전 연구”라는 전국규모의 여론조사자료를 근간으로 하고 기타 각종 문헌과 지표들 보조자료로 원용하여 작성되었다. 여론조사 자료의 성격과 자료처리에 있어 방법상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1) 자료의 성격

이 자료는 1988년 10월 1일 부터 20일 사이에 도별 인구 규모에 비례한 확률 표집법 (pps)을 사용하여 전국 2020명의 20세 이상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실시된 것이다. 일반적인 자료의 성격은 표1에 제시되어 있다. 실제의 인구구성과 비교해 볼 때 성별, 거주지별, 도시-농촌별 대표성은 상당히 높다. 그러나 연령별로는 20대가 8.3% 적게, 40,50,60대가 각각 2.5% 정도 많게 표집되었다. 또 직업별 구성에 있어서도 생산직 근로자가 과소 표집되고 학생, 주부가 과다 표집되었다. (배규한, 1989: 5)

실제 분석에서는 이러한 과다-과소 표집부분들이 고려될 것이며

전반적인 자료의 대표성은 비교적 높은 것으로 생각된다.

표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1. 성별	남자	1006	5. 가계월수입	10만원이하	3.4
	여자	1005		10-20만원	12.2
	계	2011명		20-30 "	17.1
2. 연령별			30-40 "	14.3	
	20대	29.1	40-50 "	16.4	
	30대	26.3	50-60 "	10.2	
	40대	21.5	60-100 "	13.4	
	50대	16.1	100만원이상	6.5	
	60대이상	6.9	계	100.0%	
계	99.9%				
3. 교육수준	초졸이하	26.4	6. 지역	근 지역	32.5
	중학교	21.1		시이상 도시지역	67.5
	고등학교	34.6	계	100.0%	
	대학교	8.7	7. 거주지역		
	대졸이상	9.1	8. 출신도		
계	99.9%				
4. 직업	전문·관리직	6.1	서울특별시	24.9	7.6
	사무직	3.2	경기도(인천포함)	14.8	11.6
	판매·서비스직	14.1	강원도	4.0	5.3
	생산직	5.0	충청도	10.0	17.3
	농어만	22.7	전라도(광주포함)	15.0	23.2
	학생·주부·기타	42.9	경상도(부산·대구포함)	29.5	31.1
	계	100.0%	제주도·기타	2.0	3.9
			계	100.2%	100.0%

배규한, 1989 " 선거과정과 지역감정 "에서 제인용

2) 호남인 집단-호남인에 거부감을 보이는 집단의 구분

지역갈등의 양상이 호남인과 이들에게 편견을 보이는 전국인들 간의 갈등으로 나타난다는 기존연구결과 (김만흠, 1987: 51 등)를 수용하여 설문조사자료 응답자를 호남인 (전라도가 고향인 사람) 과 호남인에 거부감을 나타내는 각 지역인 (호남인 제외) 의 두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거부감에 따른 집단 구분 기준은 전라남북도

출신인에 대하여 공통적으로 “ 싫다 ” “ 아주 싫다 ”라고 대답한 응답자들을 호남인에 대해 거부감을 나타내는 집단으로, “ 좋다 ” “ 아주 좋다 ” “ 보통이다 ”라고 대답한 응답자들을 호남인에 대해 거부감이 없는 집단으로 상정했다.

이같은 집단구분의 이유는 호남인 집단과 호남인에 거부감을 보이는 집단이 사회적 차별과 갈등의 당사자라는 점에서 비롯되며 이들의 집단간 태도, 의식차이가 존재한다면 이 차이 자체가 갈등의 구체적인 부분을 드러내 줄 수 있으리라는 점 때문이다. 따라서 사회적 차별과 기타의 몇몇 부분에서 이와같은 집단구분에 터한 분석이 시도될 것이다.⁸

8. 그 밖의 계층척도의 구성방법은 해당 장(章)에서 서술하겠다.

II. 지역과 계층구조

계층구조 (stratification)란 계급구조(class)란 개념과 더불어 사회적 불평등의 양태를 분석할 수 있는 개념이다. 계급개념이 많시즘에 입각한 사회실재론적, 일원적(一元的) 개념이라면 계층개념은 사회명본론적, 다원적 개념이라 할 수 있다(송복, 1985: 101). 따라서 계층구조라는 개념으로 사회현상을 연구할 때는 연구자의 관심에 따라 직업, 학력, 수입, 위세, 생활유형 등의 복합적 차원에서 사회불평등을 관찰하게 된다 (홍두승, 1985: 12).

이 글에서는 계층구조라는 개념을 통해서 한국 사회내에 지역간 계층구조의 차이가 존재하는지의 여부와 서울 거주 각 지역 출신인들의 계층구조상 차이가 존재하는가의 여부를 살펴보겠다.

1. 계층척도의 구성

이 글에서 계층구조의 지표로 삼고 있는 변수는 직업, 교육연수, 소득, 고용상태의 네가지이다. 직업은 홍두승(1983:206-213)의 "직업별 사회경제적 지위척도"를 사용하여 직업위세 점수를 부여하

었다.⁹ 한편 분석대상에서 주부와 학생은 제외되었다. 교육연수와 소득은 응답한 내용을 그대로 사용하였고 고용상태는 고용주, 자영업자와 가족 종사자, 상용·일일 고용자의 세 범주로 분류하여 각각 3,2,1점을 주었다. 이는 계급론적 의미로는 브르조아, 프티 브르조아, 프롤레타리아로 대응될 수 있다.¹⁰ 이상의 네 변수를 Z-Score로 표준화하여 합산한 뒤 4로 나누어 얻은 점수를 계층점수라고 명명하였다.

9. 설문조사자료의 직업분류와 일치하지 않는 범주는 생산직, 농어민의 경우인데, 생산직의 경우, 감독종사자를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중분류 값들의 평균을 반숙련노동자의 위세점수로, 소분류 값중 가장 높은 값들을 중분류 단위로 평균한 값을 숙련 노동자, 기능공의 위세점수로, 달리 분류되지 않은 노무자의 소분류 값을 미숙련공, 견습공의 위세점수로 부여하였다. 농민의 경우도 소분류 값중 가장 높은 점수를 부농에게, 일반 농업종사자의 점수를 빈농에게 주고, 중농, 소농은 이들 사이에서 같은 간격으로 분할한 값을 각각 부여하였다.

10. 왜냐하면 이러한 구분이 고용상태의 경우처럼 생산수단의 소유 여부와 노동력의 판매/구매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이다.

2. 지역별 계층 구조

분석에 사용된 지역별 거주민이 실제의 지역 인구 구성을 얼마나 대표하는지 살펴보기 위해 20세 이상 인구분포와 본 분석의 거주민 분포를 비교하였다.¹¹

비교 결과 강원지역을 제외한 충청, 전라, 경상 지역민이 실제보다 과다 표집되고 기타 지역 (서울, 경기, 제주) 거주민이 과소 표집되었다. 특히 경상지역 거주민이 6.5% 더 표집되었고 서울, 경기, 제주 지역민은 11.43% 덜 표집되었다. 그러나 전체적인 분포는 강원, 충청, 전라, 경상 지역의 실제 인구분포를 비교적 잘 대표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계층점수를 보면(표2 참조) 강원, 충청, 전라 지역은 낮게 경상, 기타 지역은 높게 나타난다. "기타"의 범주 중 하나인 제주

11. 지역별 인구구성비와의 비교

거주지	20세 이상 인구분포**	단위 %
		계층구조 분석에서의 거주지별 인구분포
강 원	4.19	4.99
충 청	10.69	12.08
전 라	13.94	16.68
경 상	29.83	36.33
기 타*	41.35	29.92
계	100.0	100.0

* 서울, 경기, 제주

** 경제기획원, 1987 한국의 사회지표

표2. 지역별 계층구조

지역 (N=1043)	강원 (N=52)	충청 (N=126)	전라 (N=174)	경상 (N=312)	기타 (N=379)	평균
평균과 표준편차						
직업 위세 점수***	32.16 (14.62)	29.67 (12.92)	31.01 (13.27)	35.89 (14.46)	40.99 (13.57)	35.94 (14.41)
교육 연수***	8.2 (4.34)	8.7 (4.23)	8.2 (4.32)	9.8 (4.04)	10.9 (3.60)	9.7 (4.12)
개인 소득***	28.3 (22.2)	31.7 (24.7)	31.1 (47.8)	40.8 (45.6)	43.2 (41.2)	43.2 (41.8)
고용 상태***	1.60 (.53)	1.74 (.52)	1.80 (.47)	1.69 (.55)	1.58 (.60)	1.67 (.56)
계층 점수***	-.238 (.568)	-.181 (.489)	-.142 (.637)	.056 (.559)	.160 (.538)	.017 (.574)

cf. 1) 교육 연수의 단위: 年 개인소득의 단위 : 만원

2) 기타: 서울, 경기, 이북, 제주, 해외

3) 괄호안의 숫자는 표준편차 값임

註. ***: $p < .001$ 위에서는 집단간 차이 검증에서 어느 범주의 경우에도 $\alpha = .001$ 수준에서 유의미함을 보여준다.

지역민은 사례수가 적기 때문에 기타 지역의 평균값에 거의 영향을 끼치지 않았으리라 생각된다. 따라서 “기타” 지역은 서울·경기 지역민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전체적으로 드러나는 서울, 경기, 경상도의 높은 점수와 상대적으로 낮은 강원, 충청, 전라도의 계층 점수는 경제적인 지역 격차에 있어 서울, 경기, 경상도는 수혜지역, 강원, 충청, 전라도는 비수혜지역이라는 기존의 연구결과 (홍성웅, 1987:51; 유석춘, 1989:4-5) 와 일치한다.

한편 계층점수가 낮은 강원, 충청, 전라 지역은 모든 범주에서 비슷한 값을 받고 있는데 그 중 강원 지역민이 가장 낮은 점수를 받고 있다. 이는 계층점수를 구성하는 개인소득, 교육연수에서 강원 지역민이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으며 고용상태에 있어서도 고용주의 비율이 낮고 일일, 상용 고용자의 비율이 높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들 세 지역중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얻고 있는 전라 지역민이 모든 지역중 가장 높은 표준편차 (.637) 를 얻고 있다는 사실은 전라 지역 거주민이 전체적으로 하위의 계층구조를 가지고 있으나 그 분포폭이 상대적으로 넓다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강원, 충청, 전라 지역간의 계층구성에서 어느 지역이 가장 하위에 분포되는가라는 점은 속단할 수 없다. 그러나 강원, 충청, 전라도의 순으로 하위계층 구성원이 많다 (혹은 상위계층 구성원이 적다) 는 사실을 경제격차와 대한 분석결과와 비교해 볼 수 있다.

박동문은 강원지역을 “기타” 범주에 포함시키고 각 지역의 경제

격차를 8가지 지표를 통해 분석했다 (박동운, 1988) 그 결과를 호남과 충청의 경우에 비교해 보면 (저자는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광공업 근로자 구성비와 기업영세율을 제외한 모든 부문에서 전라 지역이 충청 지역보다 우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의 지표들은 지역별 인구규모를 고려하지 않은 절대량의 비교가 대다수이므로¹² 14:11의 비율로 충청보다 인구가 많은 전라지역의 경제규모가 상대적으로 왜곡될 여지가 있다. 즉 인구가 고려된다면 전라지역이 충청지역보다 낙후성의 정도가 심할 수도 있다. 한편 강원, 충청 지역을 하나의 범주로 묶어 제시한 유석춘의 지표에서는 지역별 1인당 예금액과 대출액을 제외한 나머지 4가지 지표¹³에서 전라지역이 경제개발 정도에 있어 근소한 우위를 보이고 있다. (유석춘, 1989: 22-24) 그런데 이 경우에는 강원, 충청을 합산한 인구 대 전라의 인구는 15:14로 강원, 충청 지역이 더 많다. 따라서 인구비를 고려했을 경우, 이번에는 강원, 충청 지역이 전라 지역보다 낙후성의 정도가 심할 수가 있다. 결국 인구비를 고려한 상대적 경제수준에서 이들 지역간의 경제격차는 거의 미미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강원, 충청 지역을 분리하여 생각하고, 경제 지표의 적용을 지역단위로 인구비를 고려하지 않고 절대량만을 따져보는데 국

12. 나머지 6가지 지표들은 지역별 경제구조 특성, 광공업 부가가치 구성비, 광공업 사업체 구성비, 공업단지 구성비, 광공업 1인당 임금수준, 지방세 구성비이다.

13. 이들은 지역별 제조업 분포, 지역별 산업고도화율, 지역별 고용인 1000인 이상 사업체, 지역별 1인당 주민소득이다.

한시킨다면 강원, 충청 지역이 전라지역보다 낙후되었음을 보여주는 지표는 많다. 그러나 지역별 1인당 주민소득 (GDP) 같은 보다 직접적인 지표에서 전라 지역인의 소득이 최하위라는 사실은 이들 지역간의 낙후정도를 가늠하는 것이 좀더 복잡한 일이며 지속적인 연구를 필요로 한다는 것을 시사해준다. 본명한 것은 강원, 충청, 전라 지역은 경제발전의 혜택을 보다 덜 받은 비수혜지역이며 계층구조상에서도 상대적으로 하위계층의 구성율이 높고 이들 지역간의 비수혜 정도와 계층 구성은 대체로 비슷하다는 점이다.

3. 서울거주민의 출신지¹⁴별 계층구조

여론조사 자료로부터 서울에 거주하는 각 지역 출신인들을 뽑아 계층구조를 분석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표3. 서울 거주민의 출신지별 계층구조¹⁵

출신지	강원	충청	전라	경상	기타	평균
평균과 표준 편차 N=203	N=11	N=39	N=54	N=18	N=81	
직업위세 점수*	46.78 (17.25)	41.14 (13.09)	44.46 (11.02)	48.68 (12.36)	48.34 (9.73)	45.92 (11.17)
교육 연수***	10.6 (4.55)	10.3 (3.76)	10.9 (3.34)	12.83 (2.87)	12.75 (3.23)	11.69 (3.55)
개인 소득	41.6 (25.1)	42.5 (24.3)	42.4 (25.0)	58.6 (19.6)	45.5 (19.6)	45.1 (22.6)
계층 점수**	.346 (.835)	.206 (.600)	.334 (.540)	.701 (.454)	.592 (.470)	.446 (.560)

- of. 1) 소득, 교육의 단위는 표2와 동일
 2) 기타: 서울, 경기, 이북, 제주, 해외
 3) 괄호안의 숫자는 표준편차 값임
 註. * ; p < .05 ** ; p < .01 *** ; p < .001

14. 여기서 "출신지"는 "출생지" 또는 "고향"을 의미한다. 표본 분석의 증거는 "고향"이고 다른 인용자의 증거는 "출생지"이므로 "출생지"와 "고향"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를 예상할 수 있으나 그 사례 수는 너무 작을 것으로 생각된다. 실제 표본을 "출생지"와 "고향"의 경우를 각각 분석해 본 결과 그 차이는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15. 본 분석에서 고용상태는 약간의 누락사례(missing case)를 포함하고 있으며 소득과 성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내지 않기 때문에 제외하였다. 따라서 여기서는 직업위세점수, 개인소득, 교육연수로 계층을 구성하게 된다.

한편 이 분석에 사용된 표본이 실제 서울 거주 각 지역 출신인 본포를 얼마나 대표하는가를 살펴보면¹⁶ 강원, 충청, 전라 출신은 다소 과다 포집되었고 경상, 기타 지역 출신은 과소포집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전체적인 서열은 지켜지고 있고 주 분석대상인 강원, 충청, 전라, 경상 지역 출신인은 1.71-9.25% 사이의 오차를 기록하고 있다. 따라서 각 지역 출신인 구성은 어느 정도 대표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으나 전체적인 사례수가 적은 편이기 때문에 신뢰도를 저하시키는 측면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은 서울 거주민의 출신지별 직업구성자료를 통해 보충될 것이다.

16. 서울거주 각 지역 출신인 구성비와의 비교 (단위:명 (%))

	1985년 서울거주민의 출신지 본포	표본에서의 출신지 본포
강 원	356,984 (3.71)	11 (5.42)
충 청	1,210,064 (12.57)	39 (19.21)
전 라	1,670,352 (17.35)	54 (26.60)
경 상	1,147,215 (11.92)	18 (8.87)
기 타*	5,241,140 (54.46)	81 (39.90)
계	9,625,755 (100.01)	203 (100.00)

자료: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 1985 인구및 주택 센서스 제 2권 인구이동

* 기타를 구성하는 지역 중 서울출신 3,994,778명, 경기출신 945,732명으로 두 지역이 기타 비율의 94.3%, 전체비율의 51.3%를 구성한다. 표본의 경우도 이 두 지역이 기타비율의 88.9%, 전체비율의 35.8%를 차지한다. 따라서 기타의 범주는 주로 서울, 경기의 특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분석 결과 경상과 기타 (주로 서울, 경기) 출신이 평균보다 높은 계층점수를 강원, 충청, 전라가 평균보다 낮은 계층점수를 획득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3참조) 특히 강원, 충청, 전라 출신들은 서로 비슷한 점수를 얻고 있는데 이들 중 충청 출신이 보다 낮은 직업위세 점수 때문에 최하위에 처져 있다. 한편 경상출신은 가장 높은 계층점수를 보이는데 기타 지역과 비교해 볼 때 개인소득에서 더 높은 값을 가진 것이 가장 높은 계층점수를 획득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또 경상, 기타 출신들은 거의 모든 변수에서 낮은 표준편차값을 나타냄으로써 상대적으로 이들이 보다 상위계층에 보다 조밀하게 분포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이 결과를 지역별 계층구조 분석 결과 (표2) 와 비교해 보면 첫째, 모든 변수에서 서울에 거주하는 모든 지역 출신인들이 자기도의 거주민보다 높은 값을 얻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서울 거주민이 지방 거주민에 비해 직업, 교육, 소득과 이를 종합한 계층에서 보다 높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두번째로 서울 거주민의 경우에도 지역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강원, 충청, 전라 출신이 경상, 기타 지역 출신에 비해 열등한 계층구성을 보인다. 이들은 직업, 교육, 소득과 계층구성에서 경상, 기타 지역과 분명히 구분된다. 그런데 이들간의 서열은 낮은 순서부터 충청, 전라, 강원의 순위를 나타냄으로써 지역민간의 서열인 강원, 충청, 전라와는 다른 양상을 나타낸다. 그러나 교육연수와 개인소득에

서 이들 세 지역간의 차이는 미미하며 이들의 계층점수와 경상, 기타 지역 출신인의 계층점수와는 뚜렷한 대조를 보인다.

서울 거주민의 계층구조분석을 보완하기 위하여 서울 거주 각 지역 출신인들의 직업구성자료를 살펴본 결과 역시 출신지에 따른 직업구성상의 차이가 나타났다.(표4참조)

표4. 서울 거주 각 지역 출신인들의 직업구성

출신지 직업	단위%							
	서울	경상	제주	강원	충청	전라	경기	전체
전문직	12.72	9.79	14.86	9.52	8.79	6.09	8.41	9.09
행정 관리직	4.58	5.78	7.42	3.23	3.42	2.45	3.93	3.86
사무/ 관련직	28.45	23.71	26.74	21.60	21.08	16.47	21.73	3.86
판매직	18.95	20.28	14.21	16.30	20.42	21.93	22.18	20.38
서비스 직	8.21	10.57	11.25	11.71	10.61	13.15	10.50	10.82
농림/ 어업	0.91	0.52	0.00	0.73	0.61	0.44	1.00	0.66
생산/ 관련직	26.24	28.84	24.23	36.53	34.60	39.18	31.93	32.84
분류 불능	0.31	0.51	1.29	0.38	0.47	0.30	0.32	0.38
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chi^2 = 64403.6$ ($\alpha = .001$ 에서 유의미)

자료: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 1985년 인구 센서스 테이프

(전체 서울인구의 28.5% sample)

전체적인 직업구성 분포에 있어 서울, 경상, 제주 출신인은 보다 상위의 직종인 전문, 행정 관리직에 전체 평균보다 많이 분포되어 있고 보다 하위의 직종인 생산관련직에는 평균보다 적게 분포되어 있다. 경기, 강원, 전라, 충청 출신인은 이와 정반대의 경향을 보인다. 즉 전문직, 행정 관리직의 비율은 전체 평균보다 작고 생산관련직의 비율은 전체 평균보다 높다. (표5참조)

표5. 직업을 더 큰 범주로 묶은 경우의
서울거주민의 출신지별 직업구성

출신지 직업	단위 %							
	서울	경상	제주	강원	충청	전라	경기	전체
전,행 관,사	45.27	39.28	49.02	34.35	33.29	25.01	34.07	34.92
판매/ 서비스	26.80	30.85	25.46	28.01	31.03	35.08	32.68	31.10
생산 관련직	26.24	28.84	24.23	36.53	34.60	39.18	31.93	32.84
기타	1.22	1.32	1.11	1.08	0.74	1.03	1.29	1.04
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전,행,관,사=전문직, 행정관리직, 사무직

자료: 표 5

특히 전라 출신인들은 전문, 행정 관리직, 사무관련직 점유율이 가장 낮고 생산관련직 점유율은 가장 높다. 충청, 강원 출신은 서로 비슷한 직업구성을 보이는데 직업을 위 표처럼 4가지로 나누었을 때 각 직업별 분포율이 서로 거의 비슷하게 나타난다. 이들은 전라 출신에 비해 전문, 행정 관리, 사무직은 8-9% 많이 생산관련직은 3-4% 적게 점유하고 있다. 경기 출신은 이들에 비해 생산관련직 점유율이 적다. 직업범주를 세분화한 경우 (표5) 에도 전라 출신은 전문직, 행정 관리직, 사무 관련직 각각에서 가장 낮은 점유율과 서비스직, 생산 관련직에서 각각 가장 높은 점유율을 보여 준다. 이러한 경향은 그 정도는 덜하지만 강원, 충청, 경기의 경우에도 나타난다. 즉 이들은 전문직, 행정관리직, 사무 관련직의 점유율이 상대적으로 낮고 (서울, 경상, 제주 출신에 비해) 생산 관련직 점유율은 상대적으로 높다.

결국 상위직 점유율이 높고 하위직 점유율이 낮은 순서대로 각 출신인을 배열한다면 제주, 서울, 경상, 경기, 강원, 충청, 전라의 순이 된다.¹⁷ 또 이 서열은 크게 제주, 서울, 경상과 경기, 강원, 충청, 전라의 두 무리로 나누어지며 전라 출신의 직업구성분포가 후자의 집단 중에서도 가장 열악하며 그 뒤를 강원, 충청이 따르고

17. 경기의 경우 상위직(전문, 행정관리, 사무직) 점유율이 강원보다 약간 낮으나(.28%) 생산관련직 점유율은 강원보다 4.6% 낮다. 또 상대적 중간직인 판매, 서비스직의 경우는 4.67% 높다. 따라서 경기 출신이 강원 출신보다는 상위의 직업분포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강원, 충청은 앞서 언급했듯 직업 분포상 거의 차이가 없다.

있다고 볼 수 있다.

한가지 유의할 점은 서울 출신이 상위직에의 높은 점유율과 하위직의 낮은 점유율을 보인다고 해서 다른 지역 출신의 경우처럼 그 지역 출신의 직업구성이 상위편향적 (혹은 하위편향적) 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여기서 출신지는 출생지를 의미하므로 서울에서 태어난 경상도 출신 (혹은 타도 출신)의 자녀가 서울이라는 지역에 대하여 그들의 부모정도의 귀속의식 (혹은 고향의식)을 보인다고 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오히려 서울 출신자의 상당수는 자신의 부모 출신지에 귀속의식을 가질 수 있다.¹⁸ 따라서 서울 출신의 직업구성분포는 응답자의 귀속의식에 따라 다른 지역의 귀속의식으로 분해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최소한 서울 출신 직업구성은 다른 지역 출신의 직업구성에 비해 의미가 적으며 분해될 수 있는 성격의 것이다.

한편 앞서 표본을 통해 구성한 서울 거주 각 지역 출신인의 계층구성과 인구센서스 자료를 이용한 직업구성을 비교해보면 어느 경우나 서울에서 상대적으로 하위에 분포되어 있는 출신인들은 강원, 충청, 전라도 사람이라는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다. 그러나 직업구성의 경우 전라 출신의 하위편향이 상대적으로 두드러지며 제주, 서울 출신의 상위편향이 경상 출신보다도 더 강하게 나타난다. 이는 계층구성을 했을 때 강원, 충청, 전라의 차이가 미약하

18. 김혜숙(1988:146)은 귀속의식의 일환인 지역인에 대한 편견적 태도는 부모로부터 2세대들에게로 전이된다는 점을 보고하고 있다.

다는 결과¹⁹ 그리고 경상 출신이 가장 상위의 계층구성을 나타낸다는 결과와는 차이를 보이는 것이다. 따라서 이 차이점들을 좀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먼저 서울 거주민의 계층분석에서는 경상 출신이 가장 상위에 위치하고 있었는데 직업구성에서는 제주, 서울 출신이 경상 출신보다 상위직 점유율이 높다는 사실을 검토해 보자. 계층구성에서 제주, 서울은 "기타 출신"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을 분리하여 재분석한 결과 계층점수평균이 제주는 .7287, 서울은 .6291로 나타났다.²⁰ 경상 출신의 점수 (.7104) 와 비교해보면 제주는 더 높고 서울은 더 낮다. 따라서 제주 출신은 직업구성과 계층구성에서 똑같이 최상에 위치함을 알 수 있으나 서울, 경상 출신의 경우에는 직업구성에서는 서울출신이 계층구조에서는 경상 출신이 보다 상위에 위치한다고 할 수 있겠다. 그런데 직업구성에서 경상 출신을 대구, 부산 출신과 기타 지역 출신으로 분리해 보면 경상출신이 상위편향적 분포를 보이는 것은 주로 대구, 부산 출신인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표6참조)

19. 계층구성에서 가장 낮은 계층점수를 보인 집단은 충청 출신이었으나 거의 모든 변수에서 강원, 전라 출신과 커다란 차이를 나타내지는 않았다.

20. 표준편차는 제주=.3453 서울=.3998 경상=.4535로 모두 전체 평균표준편차(.5597)보다 작은 값을 갖는다

표6. 경상출신을 본할했을 경우의 직업구성

단위 %

출신지 직업	경상			총 청
	부 산	대 구	기 타	
전문직/행정 관리직/사무관련직	50.17	52.32	36.53	33.29
판매/서비스직	27.63	25.13	32.04	31.03
생산관련직	21.21	21.04	30.64	34.60
기타(농, 임, 어업/ 분류불능)	0.99	1.51	0.99	0.74
계	100.00	100.00	100.00	100.00

자료: 표4

또 부산, 대구 출신을 제외하면 경상 출신인의 직업구성은 하위 편향적 본포를 보이는 충청출신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아울러 부산, 대구 출신인은 서울, 제주 출신인 보다도 상위직에 더 많이 하위직에 더 적게 본포되어 있는 가장 상위의 직업구성을 보인다는 점도 확인된다. 따라서 계층구조분석에서 경상출신이 가장 높은 점수를 얻는 것은 표본의 경상 출신 사례 수가 너무 적기 때문에 대표성이 저하되었다는 점과 이들 중 부산, 대구 출신이 과대표집되었을 가능성 때문일 수 있다. 그러나 직업구성이 반드시 계층구성에서도 동일한 순서로 나타난다는 확신은 할 수 없기 때문에 직업구성에서 서울, 제주 출신이 가장 상위 본포경향을 보인다고 해서 계층구성에서도 이들 출신이 가장 상위에

본포되어야 한다고 (계층구성에서는 경상 출신이 가장 상위에 본포) 볼 수는 없다. 이 부분은 더 심층적인 연구를 필요로 한다고 생각된다.

다음으로 서울 거주민의 직업구성에 있어 계층분석과는 달리 전라 출신의 하위편향이 충청, 강원 출신보다 강하게 나타난다는 점을 검토해보자. 이를 위해 다른 자료인 "서울시 저소득층의 출신 지역별 본포"를 (김만홍, 1989:39) 인구비를 통제하여 재구성해보면 전라 출신이 저소득층 본포율이 가장 높고 그 다음이 충청, 강원 출신이다. (표9참조). 경상출신과 기타 (서울, 경기, 제주 등) 출신은 인구비에 비례하거나 그보다 적은 비율로 저소득층에 본포되어 있다. 즉 서울에 거주하는 전라 출신은 자기 인구비에 비해 1.8배만큼 저소득층을 더 가지고 있고 충청, 강원 출신은 1.3 배 정도의 저소득층을 더 가지고 있는 반면 나머지 지역 출신인들은 자기 지역 인구와 비례하거나 (경상:1배) 더 적다는 것을 (기타:.67배) 보여준다.

표7. 서울시 저소득층의 출신지역별 본포

출신 지역	서울거주민의 출신지 본포 1980	서울시 저소득층*의 출신지역별 본포 1979	단위 *
			인구비를 감안한 저소득층 비율***
충 청	12.92	17.3	1.34
강 원	3.63	4.7	1.29
전 라	16.03	28.3	1.77
경 상	11.63	12.5	1.07
기 타*	55.78	37.2	0.67

* 생활보호 대상자, 영세민, 저소득층을 합한 개념
 ** 서울, 경기, 제주, 해외, 미상으로 구성됨
 *** 저소득층 본포율/출신지 본포율

자료: 서울특별시, 1979.11 저소득 시민의 생활실태에 관한 기초 조사와 정책방향에 관한 연구와 1980년 인구및 주택센서스보고를 통해 지구성

따라서 서울 거주민의 직업구성과 저소득층 분포에 있어 가장 하위에 위치한 것은 전라 출신인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계층분석에서는 강원, 충청과 비슷한 수준에서 하위에 분포되어 있던 전라 출신은 직업구성에서 뚜렷하게 상대적 열세를 나타내며 서울에 거주하는 저소득층의 비율도 가장 높게 나타난다. 따라서 서울 거주민의 경우 전라, 충청, 강원 출신이 직업구성과 소득, 계층구성에서 다같이 하위에 편향된 분포를 보이지만, 특히 전라 출신의 하위편향이 상대적으로 두드러진다고 볼 수 있다. 유의할 점은 전라 출신이 각 지역 출신 중 서울에 가장 많이 거주하는 집단이기 때문에 실제 저소득 층에서 전라 출신을 접촉할 확률은 인구비율 고려한 수치보다 훨씬 크다는 점이다.

4. 소결(小結)

각 지역민과 서울 거주 각 지역 출신인의 계층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1) 지역의 경우 충청, 강원, 전라 지역 거주자들은 계층구조상

상대적으로 하위에, 서울, 경상, 경기 지역 거주자들은 상위에 더 많이 분포되어 있다. 이는 많은 연구자들이 지적하고 있는 경제 개발 과정과 결과에서 나타난 지역 격차가 계층구조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준다. 한편 충청, 강원, 전라 지역 거주자들은 서로 비슷한 계층구조를 가지며 근소한 차이로 강원 지역 민이 가장 하위의 계층구조를 보인다.

2) 서울 거주민의 경우 충청, 강원, 전라 출신은 모든 지역 출신의 평균보다 하위계층 구성율이 높고 상위계층구성율은 낮으며 서울, 경상, 제주 출신은 그 반대 경향을 보인다. 이 경향은 지역별 계층분포 경향과도 일치하는 것이다. 한편 전라 출신은 저소득층 비율이 가장 높으며 직업구성에 있어서도 보다 하위직인 생산직, 판매 서비스직에 가장 많이, 보다 상위직인 전문직, 행정 관리직, 사무 관련직에 가장 적게 분포되어 있다. 또 이 분포율은 강원, 충청의 경우와도 어느정도 차이를 보인다.²¹

서울 거주민의 계층구조는 한국 사회의 인구이동에 관해 하나의 시사점을 던져준다. 그것은 서울로의 인구이동에 있어서 이동 당시의 지위에 따라 이동 후의 지위가 결정될 가능성에 대한 것이다. 즉 지역별 분석에서 나타나듯이 경제적으로 덜 개발되어 있고 하위

21. 저소득층 비율에 있어 차이는 인구비율 고려했을 때 자가지역 인구보다 .43-.48배 정도 전라 지역이 더 많은 저소득층을 가진 것으로 나타나며 직업구성에 있어서는 전라지역이 강원, 충청 지역보다 전문, 행정 관리, 사무직에서 9% 정도 적고 판매 서비스직은 5% 내외, 생산 관련직은 3-4% 내외로 더 많이 분포하고 있다.

편향적 계층구성을 갖는 충청, 강원, 전라 지역민은 인구가동이 높고²² 이 지역 출신 서울 거주자들은 서비스직, 생산 관련직 구성율이 높다. 반면 대구, 부산 출신의 경우 서울 거주자의 비율도 작을 뿐만 아니라²³ 상위직 구성율이 매우 높다.(표6) 이것은 이들이 이동 전에도 대구, 부산에서 상위직에 분포되어 있었거나 적어도 상대적으로 타 지역민에 비해 높은 계층에 속해 있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왜냐하면 대구, 부산이 타 지역보다 더 개발되었고 그에 따른 전반적인 소득, 직업구성도 더 상위일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들 지역인 중 소득, 직업 구성상 하위에 분포된 사람들이 서울로 이동했을 경우도 있겠으나 대구, 부산 이외의 보다 낙후된 경상 지역 출신인들은 충청, 강원 출신과 비슷한(약간 상위의) 직업구성을 보여준다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대구, 부산의 이동자들이 대체로 상위계층에 속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충청, 강원, 전라 지역의 낙후성은 서울 거주 각 지역 출

22. 송복(1988: 282)이 정리한 "추계(推計)지역이동인구"를 보면 1960년에서 1985년까지 추계지역이동인구(자기 지역의 인구증가를 고려했을 때의 이동인구)는 전라 지역이 377만, 충청이 191만 5천, 경상이 92만이다. 경상지역은 자기 인구 규모를 고려할 때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이동율을 보인다. 한편 강원지역은 전국 인구 구성비가 지속적으로 감소해서 1960년 전국의 6.6%를 구성하던 것이 1975년 5.4%, 1985년 4.3%로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이는 자기 인구규모를 고려할 때 매우 높은 이동율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23. 서울 거주 부산, 대구 출신인들은 각각 16만 1820명(1.68%), 10만 7247명(1.55%)이다(1985, 인구 및 주택 센서스). 그런데 부산, 대구 지역 인구가 전국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각각 8.69%, 5.02%이다. 따라서 이들의 서울 거주 인구는 자기 인구규모에 비해 매우 미약한 수준이라 할 수 있다.

신인의 계층구성에서도 재차 나타난다. 다시 말해 충청, 강원, 전라 지역은 지역상으로 타도에 비해 낙후되었을 뿐만 아니라 서울에서도 이 지역 출신인들은 타지역 출신인들에 비해 하위편향적인 계층구조를 가진다는 것이다. 이는 이동의 주원인이 경제적 이유에 있으며 이동 결과 그들 지역민보다는 높은 계층구성을 갖게 되지만²⁴ 여전히 서울지역 내에서 하위계층에 더 높은 분포율을 보임으로써 성취감이 아닌 상대적 박탈감을 갖게 되었으리라고 추측할 수 있도록 해준다. 또 이것은 앞서 지적한 것처럼 이동을 통한 지위상승은 전체적으로 볼 때 어렵다는 점을 시사해 준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서울 거주 전라 출신인이 소득, 직업구성에서 하위편향성을 보이는 것은 지역감정과 관련하여 인구이동이 갖는 역할을 생각하게 해준다. 즉 전라출신은 전국에서 가장 높은 이동율을 보이고 있고 그 절대수에 있어서도 모든 지역 중에서 가장 많으며 이들이 계층구성상 하층에 가장 많은 분포율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공업화 과정에서 농업부문에 종사했던 상당수의 (호남) 사람들이 대도시의 비공식 부문이나 저임금부문에 종사하게 되어 사회적 하위계층을 형성하게 됨에 따라 이 하위계층문화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전라도인 전반에 대한 부정적 편견으로 연결되게 되었다”라는 김만흠의 주장 (1987: 51)이나 “(전라 출신인의) 급격한 인구이

24. 표3과 표4를 비교해보면 서울 거주 각 도 출신인이 모든 변수에서 자기 지역민들보다 높은 값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동에 따른 사회관계와 의식 개방 사이의 갭(gap)이 전라지역민에 대한 편견의 원인"이라는 송복의 주장 (1988: 283-286) 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설명은 전라 출신의 인구이동이 드문 서울 이외의 타지역 (강원, 충청 등) 거주민들이 왜 전라출신인에 대해 편견을 나타내는가를 설명할 수 없다는 한계를 갖는다.²⁵ 또 한국 사회에서 뚜렷한 하위계층문화특성은 아직 발견되지 않는다는 주장 (오세철, 1982: 382) 을 따른다면 하위계층 본포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전라 출신에 대한 부정적 편견과 연결될 기반인 하위계층문화 자체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그와같은 편견의 원인설명을 할 근거가 없게 된다. 따라서 전라도인에 대한 편견은 여타의 다른 변수들과 함께 좀 더 구체적이고 조직적으로 설명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지역별, 출신지별 계층분석 결과 서울 거주민의 경우 전라 출신이 계층구성상 상대적으로 하위에 본포되어 있기는 하지만 전라, 강원, 충청 출신은 경상, 서울, 제주 출신과는 뚜렷이 구분가능한 하위편향적 계층구성을 가진다는 점과 지역별 계층구성에서 전라, 강원, 충청 지역인은 서로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는 하위편향적 계층구성을 가진다는 점은 호남인의 영남인에 대한 지

25. 이러한 주장에 대한 반박으로 각 지역인이 모여있는 서울에서 부정적 편견이 발생되어 각 출신지역으로 전파되었다고 주장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전라도인에 대한 편견이 대부분 경험적 편견(경험해 보니 과연 — 더라)이라면 그러한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또 그것이 어떻게 전파되는지를 밝혀야 설득력 있는 주장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고려 없이 단순히 인구이동과 편견을 관련지우는 설명은 잠정적이며 한계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역감정이 경제적 차별 때문만은 아니라는 것을 제시해 준다. 왜냐하면 앞서 지적했듯이 비슷한 경제적 차별을 받은 강원, 충청 출신들은 영남인에 대한 지역감정이나 지역갈등을 표출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다음 장에서는 호남인의 영남인에 대한 지역감정의 다른 요인이라고 간주되는 호남인에 대한 사회적 차별에 대해 살펴보겠다.

III. 호남인에 대한 사회적 차별

이 장에서 살펴보는 것은 호남인에 대한 전국적인 거부감과 차별 그리고 호남인이 느끼는 차별감이 어떤 양상을 보이며 어느 정도로 나타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아울러 이러한 검토를 통해 문제제기에서 지적했듯이 호남인이 영남인에 대해서만 지역감정을 나타내는 이유가 경제 격차(계층구조상의 격차)로는 설명되지 않으므로 사회적 차별이 설명해 줄 수 있는 부분을 탐색하려고 한다.

이를 위하여 먼저 지역간 거부감의 전반적 양상을 파악하고 다음으로 호남인에 대한 거부감과 호남인이 느끼는 차별감을 대조해 볼 것이다. 또 호남인이 느끼는 차별감이 영남인에 대한 거부감과 관련되는지의 여부를 살펴볼 것이다.

1. 지역간 거부감의 전반적인 양상

지역간의 거부감은 호남인에 대해 타지역인이 느끼는 거부감과 영남인에 대해 호남인이 느끼는 거부감으로 대표될 수 있다 (나간채, 1989: 138 ; 김진국, 1989 등).

1) 호남인에 대한 타지역인의 거부감

설문 조사 자료에서 “ 각 지역출신을 어느 정도 좋아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하여 전라남·북도 출신인이 “ 싫다 (아주 싫다 포함) ” 고 대답한 응답자는 전체응답자 (전라 출신 제외) 1507명 중 487명 (32.3%)이다. 이 비율은 호남인의 영남인에 대한 거부감(26.2%)보다 크며 호남인에 대한 거부감이 한국 사회에 강하게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보다 간접적으로 “사업의 동업자로서 각 지역 주민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라는 질문에 대하여 전라남도 출신에 “반대”하는 비율은 39.8%에 이른다. ²⁶

호남인에 대하여 “싫다”고 응답한 사람들은 거주지별로 분류해 보면 거주지의 인구비례와 거의 동일한 비율로 “싫다”는 응답을 한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표8 참조)

표8. 거주지별 인구비와 호남인에 거부감을 보이는 비율의 비교

		단위 %	
		거주지별 인구비	거부감을 보이는 비율
지 역 (거주지)	서울	24.9	22.6
	경기	14.8	15.2
	강원	4.0	5.7
	충청	10.0	12.7
	경상	29.5	40.7
	제주(기타)	2.0	2.9
계		85.2*	99.8

*전라 지역이 제외되기 때문에 100%가 되지 않는다.

26. 전북의 경우는 37.0%로서 전남에 대한 거부감보다 약간 낮다.

영남 출신을 제외하고는 모든 지역인이 자기 인구비례에 따라 호남인에 대해 거부감을 나타낸다는 사실은 전라출신에 대한 거부감이 전국적이며 특히 영남에서 한 층 더 강하다는 것을 알려준다.²⁷

2) 영남인에 대한 호남인의 거부감

호남인 응답자들이 영남인에 대하여 “싫다”고 응답한 비율은 경남에 27.1%, 경북에 26.4%로서 다른 지역 출신에게 “싫다”고 응답한 비율에 비해 두드러지게 높은 수치를 나타낸다.²⁸ 또 경상 남·북도 출신이 모두 싫다고 응답한 호남인의 비율은 26.2%이다. 그런데 이 비율은 영남인이 호남인에 대하여 “싫다”고 응답하는 비율(40.7%)에 비해 작은 수치이다.

또 앞서 살펴본 것처럼 특정 지역에 대한 거부감을 간접적으로 질문 (동업자로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했을 때 호남인에 대한 거부감이 증가 (39.8%) 했던 것과는 반대로, “결혼 상대로 영남 출신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라는 질문에서 “반대한다”고 응답한 호남인의 비율은 17% 정도로 직접적인 거부감에 비해 감소하고 있다.

27. 한편 영남인은 서울 출신에 대해서도 (호남인에 대한 것 보다 낮은 비율이지만) 9.7%가 “싫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28. 호남인들은 서울출신에 대해서는 6.9%, 경기 5.8%, 충청 3.2%, 강원 6.7%, 제주 3.2%의 비율로 “싫다”는 응답율을 나타낸다.

이러한 사실은 호남인들의 영남인에 대한 거부감이 영남이나 기타 지역인의 호남인에 대한 거부감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약한 것이며²⁹ 거부감의 내용도 다를 것이라는 점을 시사해 준다. 즉 호남인에 대한 거부감은 그들의 태도나 행동양식에 대한 부정적 평가인 반면 호남인의 영남인에 대한 거부감은 불만과 차별감에 근거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김만홍, 1987: 76; 김진국, 1988: 236). 결혼 상대자로서 호남인이 영남인을 기피하는 비율은 낮고 (17%) 호남인에 대한 기피율은 전국적으로 높다 (약 33%) 는 사실은 이러한 주장에 대한 하나의 근거가 될 수 있다.

호남인의 영남인에 대한 거부감과 이들의 차별감 사이의 관련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호남인을 영남인에 대한 거부감 (싫다) 유무에 따라 두 집단으로 나누어 비교해 본 결과 호남인이 갖는 거부감에 상관없이 이들의 불만은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즉 “지역갈등의 원인” 과 “지역격차의 원인” 에 대한 질문에서 영남인의 거부감을 보이는 호남 응답자와 그렇지 않은 호남 응답자는 모두 “정부의 경제발전 정책” 과 “정부의 정책별 차별” 에 가장 높은 응답율을 보이고 있다. (표9 참조) 이는 “주민간 편견” 과 “정치인의 선거운동” 이 지역갈등의 주 원인이라는 호남인이외의 응답자들의 반응과

29. 김진국도 “전라도 사람들은 서울, 충청, 경상도 사람들이 자신을 싫어하는 정도보다는 그들을 덜 싫어한다”고 쓰고 있다. (1988: 230)

는 뚜렷한 차이를 보이는 것이다.³⁰

또 전라출신 두 집단은 영남인에 대한 거부감이 있는 경우 없는 경우 보다 약간 더 불만을 나타냄을 알 수 있다. “경제개발 계획 시 고려할 점”에 대한 질문에서 영남에 거부감을 보이는 호남인에 상대적으로 높은 응답을 보임으로서 불만의 정도가 더 강함을 보여 준다. 그러나 이들의 응답을 호남인 이외의 응답자의 그것과 비교해 보면 국가 전체이익에 47.8%, 지역격차해소에 52.2%의 응답을 보임으로서 전라출신 집단의 차별감이 거부감 유무에 따라 정도 차는 있지만 공통적으로 높게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0. 호남인 이외의 응답자들은 “지역갈등의 원인”을 1)주민간 편견 (26.3%) 2)정치인의 선거운동 (23.5%) 3)정부의 경제발전 정책 (19.5%) 4)역사적 배경 (8.8%) 5)신문방송의 보도 (6.7%) 6)정부의 인사행정 (5.7%)의 순으로 고 있다. 또 “지역격차의 원인”은 1)정부의 정책적 차별 (62.2%) 2)산업 입지조건차이 (17.8%) 3)주민특성차이 (16.4%) 4)기타 (3.6%)의 순으로 파악하는데 이 경우 제 원인은 호남인 집단과 동일하나 그 비율 (62.2%)에 있어 호남인 응답자와 큰 차이가 있다. 호남인 응답자들은 정부의 정책적 차별에 응답한 비율이 영남에 대한 거부감 유무에 따라 각각 88%, 81%이다.

표9. 영남인에 대한 거부감 유무로 호남인을 구분한 경우의 지역 문제에 대한 태도

지역문제에 대한 태도		단위 %		χ ²
		영남인에 거부감을 보이는 호남인	영남인에 거부감을 보이지않는 호남인	
지역 갈등 의 원인	주민간 편견	7	12	7.66
	정부의 경제발전정책	59	47	
	정부의 인사행정	13	18	
	정치인의 선거운동	13	14	
	신문방송 보도	5	4	
	역사적 배경	3	5	
	소 계	100	100	
지역 격차 의 원인	산업입지조건 차이	9	10	4.69
	정부의 정책적 차별	88	81	
	주민특성 차이	3	7	
	기 타	1	3	
	소 계	101	101	
고려 사항	국가 전체 이익	20	33	6.115*
	지역 격차 해소	80	67	
	소 계	100	100	

註. * p < .05

이상의 지역문제에 대한 태도를 종합해 보면 호남인은 영남인에 대한 거부감과는 상관 없이 공통적으로 높은 불만과 차별감을 나타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사실을 영남인에 대한 거부감과 연결시킨다면 영남인에게 거부감을 나타내는 비율이 불만의 비율보다는 훨씬 낮고 불만이 높을 수록 거부감은 크며 또 이 거부감이 결혼과 같은 “인성(人性)”에 관련된 지표에서 낮게 드러난다는 점에서 호남인의 영남인에 대한 거부감은 불만과 차별감에 바탕을 둔 것이며 이것이 지역갈등의 기반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즉 호남인에게 공통적인 것은 경제적, 정책적, 인사상으로 자신들이 차별받았다고 느끼는 차별감(불만)이며 이들 중 소수가 영남인에 대해 거부감을 나타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지역”과 관련된 문제에서 호남인에게 공통적으로 작용하는 것은 영남에 대한 거부감 보다는 경제적, 정책적 차별감인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확인된 것은 주로 경제적 측면에서 느끼는 차별감이므로 이와는 별도의 사회적 차별감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는 2절에서 이루어진다.

3) 지역갈등 당사자들의 태도차이

거부감을 중심으로 지역간 갈등을 파악해 볼 때 갈등의 당사자는 호남인에 거부감을 보이는 타지역인(물론 이 타지역인에는 영남인도 포함된다)과 호남인이라고 할 수 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호남인들은 영남인에 대한 거부감에 상관없이 공통적인 차별감을 나타내므로 호남인 자체가 지역감정의 당사자이며 또 호남인 전체에게 전국적인 편견이 가해진다는 점에서 호남인은 자신들에게 편견을 갖는 이들에게 대립하는 하나의 집단인 것이다.

따라서 이 두 당사자 (호남인과 호남인에 대해서 거부감을 보이는 타지역인) 들이 지역문제에 어떠한 태도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봄으로써 갈등의 내용이 부분적으로나마 드러날 수 있고 이는 전반적인 지역갈등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분석결과 두 집단은 첨예한 태도차이를 보인다. (표10 참조) 지역갈등의 가장 큰 원인을 호남인은 " 정부의 경제발전 정책 " 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나 (59%) 호남인에 거부감을 보이는 타지역인들은 주민간 편견 (33%) 과 정치인의 선거운동 (26%) 을 주 원인으로 생각한다. 이들 중 " 정부의 경제발전 정책 " 이 지역갈등의 원인이라고 응답한 사람들은 16%에 불과하다. 한편 두집단이 공통적으로 지역격차의 원인이 " 정부의 정책적 차별 " 이라고 지적하고 있지만 그 비율에 있어서는 큰 차이 (호남:83%, 懸 호남:59%) 를 보이고 있다. 거부감을 보이는 집단은 지역격차의 원인을 " 주민특성차이 " 로 응답한 비율이 22%에 이르며 (호남: 3%) " 산업입지조건 차이 " 로 응답한 비율도 17% (호남: 9%) 에 이른다. 경제개발 개발 계획시 고려점에 대하여 호남출신은 " 지역격차해소 " 에 압도적으로 높은 응답을 하고 있지만 (81%) 거부감을 보이는 집단은 " 국가전체이익 " 과 " 지역격차해소 " 를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고 응답하고 있다.

표10. 호남인과 호남인에 거부감을 보이는 사람들의 지역문제에 대한 태도

지역문제에 대한 태도		단위 *		X ²
		호남인	호남인에게 거부감을 보이는 타지역인	
지역 갈등 의 원인	주민간 편견	11	33	177.7***
	정부의 경제발전정책	50	16	
	정부의 인사행정	17	5	
	정치인의 선거운동	14	26	
	신문방송 보도	4	7	
	역사적 배경	4	13	
	소 계	100	100	
지역 격차 의 원인	산업입지조건 차이	9	17	72.68***
	정부의 정책적 차별	83	59	
	주민특성 차이	6	22	
	기 타	2	2	
	소 계	100	100	
고려 사항	국가 전체 이익	29	50	41.34***
	지역 격차 해소	81	50	
	소 계	100	100	

*** p < .001

이상과 같은 결과는 호남인들은 공통적으로 지역갈등·격차가 경제적, 정책적인 지역차별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하며 따라서 지역격차해소를 강하게 열망하는 반면 호남인에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타지역인들은 편견과 주민특성들에 보다 더 지역갈등·격차의 원인을 귀속시키는 경향을 보여주며 따라서 지역격차해소에 대한 열망도

약하게 나타난다. 이는 이들이 호남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육받고 소득수준도 높은 집단임을 시사해 준다. 실제로 이들의 교육, 소득을 호남인 집단과 비교해 보면 더 높은 평균치를 갖는 것으로 드러난다.³¹

2. 사회적 거부감과 차별감

1) 호남인에 대한 거부감

지역간 편견을 최초로 연구한 이진숙 (1959: 82) 은 호남인의 특성은 타도인에게 주로 “간사하다”고 평가된다는 것을 보고하고 있다. 이는 다른 지역인에 대한 평가에 비해 하나의 단일한 범주로 평가되는 특성이며 부정적인 것이다.³² 이후의 편견 연구에서도

31. 호남인과 이에 거부감을 나타내는 타지역인을 교육과 소득에 대해 t검정한 결과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났다. 결과는 아래와 같다. (**: $\alpha = .05$ 수준에서 유의미)

	호남인	호남인에 거부감을 보이는 타지역인	t 값
교육 연수	9.34년	10.05년	-2.69**
개인 소득	26만 1천원	32만 3천원	-1.78**
가계 소득	54만 5천원	62만 9천원	-1.84**

32. 예전대 부정적인 특성을 가진 또하나의 집단인 서울 사람의 경우 특성이 다양하며 덜 부정적이다. 즉 “서울 사람들은 각쟁이며, 간사하고 사교적이며 경우가 밝다”고 평가된다. 다른 지역인들은 좀더 긍정적인 특성을 많이 가지고 있으며 다양한 평가를 받고 있다. (윗글, 87)

호남인에 대한 부정적 평가는 계속 이어진다. 고흥화, 김현섭(1976)은 “결혼, 친구, 동업, 동거, 정착 등 다섯개 항목에서 호남인을 택하겠다는 반응이 평균 7.97%, 택하지 않겠다는 반응이 평균 55%로 나타난다.”고 쓰고 있다.(윗글, 32) 최근의 연구에서 나간채(1989)도 “호남 사람에 대하여 거부감을 보이는 응답자의 비율이 가장 높고 거부감을 가장 적게 받는 대상은 충청도 출신 집단이었다”고 말한다. (윗글: 138)

한편 호남인에 대한 부정적 평가 형용사는 “간사하다”, “타산적이다”, “생활력이 강하다”, “이기적이다” 등으로 표현되는데 (안신호, 1988; 이진환, 1988등) 여러 연구자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형용사는 “불신”으로 요약될 수 있다. 다시 말해 호남인에 대한 편견의 내용은 그들을 “믿을 수 없다”는 것이다.

본 연구 결과는 이제까지의 호남인에 대한 편견연구와 일치되는 사실을 보여준다. 호남인에 대한 거부감은 결혼, 동업, 친구, 이웃의 네 차원에서 집론한 결과 모든 경우에서 호남인이 모든 지역 출신 중 가장 높은 거부감을 받고 있고 그 본포도 전국적이라는 점이 드러난다. 또한 네 차원 중 “동업”에 가장 높은 거부율을 보임으로써 호남인에 대한 편견의 주 내용이 “불신”에 있으리라는 간접적인 증거를 제시하고 있다³³(표11 참조).

33. 왜냐하면 “믿을 수 없다”는 사실이 가장 민감하게 작용하는 부분은 결혼, 친구, 이웃의 경우보다 동업을 통한 사업에서일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표11. 호남인에 대한 거부감

거부율 (호남인을 제외한 전국 평균값)	단위 *			
	사업	결혼	친구	이웃
	39.1	34.6	22.3	13.9

cf. 결혼의 경우 북한 출신에 대한 거부율 (17.3%)과 경상출신에 대한 거부율 (7.5%, 주로 전라 응답자에게서 높은 거부응답을 받기 때문에 거부율이 높다) 을 제외하면 나머지 지역은 2-5% 정도의 낮은 거부율을 보인다.

호남인에 대한 거부감이 출신 지역별로 어떻게 분포하는가를 살펴보기 위해 결혼의 경우 호남인에 대한 거부감을 보이는 비율을 출신지별로 살펴보면, 강원, 제주, 경상 출신이 가장 높은 거부감을 나타냄을 알 수 있다. 특히 강원, 제주 출신의 경우 경상 출신보다도 높은 거부율을 보인다. 나머지 지역 출신의 경우 26-30% 정도의 거부감을 보임으로써 상대적으로 강원, 제주 보다는 낮지만 전체적인 경향은 전라 출신에 대한 거부감이 전국적이라는 사실에 어긋남이 없다. 또한 전북 보다는 전남 출신에 대한 거부감이 약간 더 강하다는 사실이 모든 지역 출신의 경우에 공통적으로 드러난다. (표 12참조)

표12. 결혼대상자로서의 호남인에 대한 출신지별 거부율

		단위 %						
출신지	서울	경기	강원	충청	경상	제주	기타	평균
거부율								
전북출신인에 대한 거부율	25.7	26.4	40.0	28.0	36.2	40.0	28.1	32.8
전남출신인에 대한 거부율	27.0	27.7	41.9	30.9	39.6	40.0	28.1	34.6

2) 호남인의 사회적 차별감

앞서 살펴보았듯이 호남인에 대한 전국적인 거부감이 존재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호남인의 차별 받은 경험이 나타날 것이다. 그러나 호남인에 대한 전국적인 편견은 말 그대로 행위 차원이 아닌 고정 관념이나 편견의 형태로 확인된 것일 뿐이라는 점에서 실제의 차별 정도는 알 수가 없다. 따라서 실제의 차별이 얼마나 가해지는가에 대한 하나의 지표로서 호남인의 차별(받은) 경험을 사용할 수 있다.

설문조사의 분석결과는 호남인의 차별경험이 제주 출신의 그것과 더불어 가장 높게 나타남을 보여준다.(표13)

표13. 각 지역 출신인의 차별 경험율

차별받은 출신지	차별받은 내용	단위 % (경험율)					평균
		인간적 모욕	금전적 손해	취업상의 불이익	승진상의 불이익	소속집단으로 부터 따돌림	
전라		26.0	11.8	19.5	10.3	12.7	16.1
제주		15.6	20.0	17.8	11.1	6.7	14.2
강원		10.4	19.0	5.9	2.0	2.9	8.0
기타*		5.3	5.8	2.4	1.8	2.7	3.6

* 서울, 경기, 충청, 경상, 이북으로 구성됨.

그런데 제주 출신이 느끼는 차별감은 이들이 한국 사회에서 수적으로 가장 소수집단이며 지리적으로도 육지(내륙)와 분리되어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갖는 상대적 이동의 어려움과 고립감에서 비롯한다고 생각된다. 즉 제주 출신에게는 호남인에 대해서처럼 인성에 관련된 편견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들이 느끼는 차별감은 편견에 대한 반응인 호남인의 그것과는 성격이 다르며 소수집단의 고립감의 또다른 표현이라고 볼 수 있다.

호남인의 차별경험은 가장 높은데 특히 “인간적 모욕을 당한 적이 있다”는 응답이 호남인의 26%에 이르고 있다. 이 항목은 “금전적 손해” “승진상의 불이익” “소속 집단으로부터의 따돌림”에 비하면 두 배 이상의 응답율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런데 이 항목은 다른 항목과 그 내용면에서 비교해 볼 때 “비난”이라는 부정적 행위의 가장 낮은 수준의 것임을 알 수 있다. 즉 “인간적 모욕” 이외의 항목은 좀더 “차별행위”라는 특성을 지니고 있는 반

면 이 항목은 “비난” 이라는 언술적 측면의 행위인 것이다.³⁴

Allport는 편견에서 비롯된 부정적 행위 수준을 낮은 단계부터 비난 (antilocution), 회피 (avoidence), 차별 (discrimination), 물리적 공격 (physical attack), 근절 (extermination)으로 구분하고 있다 (1980: 14). 이 구분에 따른다면 호남인의 차별경험 중 가장 커다란 부분은 “비난”의 차원인 “인간적 모욕”이라고 할 수 있다. 아울러 호남인에 대한 거부감의 비율 (사업, 결혼의 경우 전남 출신에 대해 전국 사람의 39.8%, 34.5%가 거부감을 표시)과 비교해 볼 때 호남인의 차별경험의 비율은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실들은 호남인에 대해 편견이 광범위하게 분포되어 있고 그에 따른 “비난” 수준의 차별은 비교적 자주 발견되지만, 실제 행위 수준에서의 차별은 아직까지는 보편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시사해 준다고 볼 수 있다. 즉 높은 거부감은 현실에서의 높은 차별과는 아직까지 거리를 두고 있는 것이다.

3. 소결 (小結)

34. 그러나 “취업상의 불이익”을 경험한 호남인이 19.5%나 된다는 사실은 “비난”보다 강한 수준의 편견이 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하지만 이 자료를 통해 상대적으로 강조되는 것은 “비난”의 수준이며 “취업상의 불이익”은 “비난”에 비해 제시되는 근거가 적고, 다른 자료를 통한 보충이 요구되기 때문에 호남인에 대해 확인된 가장 주된 편견은 “비난” 수준의 것이라고 잠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

지역간의 거부감은 호남인에 대한 전국적인 거부감과 (영남인의 호남인에 대한 거부감 포함) 영남인에 대해 호남인이 느끼는 거부감으로 나뉘어 진다. 호남인을 중심으로 해서 이들에 대한 거부감의 특성과 호남인의 차별감의 양상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호남인에 대한 거부감은 전국적으로 나타나며 “싫다”는 직접 거부보다 “동업” “결혼” 상대로서의 거부감이 더 높게 나타나고 이 중에서 “동업” 에서의 호남인 거부율이 가장 높게 나타난다. 이는 호남인에 대한 편견의 주 내용이 “불신” 이라는 점에서 많은 영향을 받은 것이라 생각된다. 특히 제주, 강원, 경상 출신인이 타지역 출신에 비해 호남인에 대해 상대적으로 높은 거부감을 나타낸다. 한편 호남인에 대한 거부감을 가진 사람들을 모아 지역문제에 대한 태도를 호남인과 비교해 보면 이들은 지역갈등이나 격차의 원인이 “주민 특성 차이” 나 “편견” 때문이라고 응답하는 비율이 높다. 이는 결국 호남인에 대한 편견이 호남인의 인성을 문제시하는 사회심리적인 것이라는 사실을 지지해준다.

2) 호남인은 이와 같은 전국적 거부감에 대하여 영남인이나 타지역민이 그들을 싫어하는 비율보다 작은 비율로 영남인에 대해서만 거부감을 나타낸다. 특히 영남인이 “싫다” 는 응답율에 비해 “결혼상대로서 영남인이 싫다” 는 응답율은 더 낮다. 이러한 사실은 호남인에 대한 거부감과 달리 호남인의 영남인에 대한 거부감은 심리적 편견의 측면이 적다는 것을 보여준다. 오히려 호남인들은 영남인에 대한 거부감 유무와 상관없이 공통적인 경제적 차

별감과 지역격차해소 열망, 그리고 사회적 차별경험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지역간 갈등에서 호남인의 경우 문제가 되는 것은 영남인에 대한 거부감이 아니라 경제적·사회적 차별감임을 알 수 있다. 또 호남인의 영남인에 대한 거부감은 그 밑바닥에 현실적으로 경제적·사회적 차별을 받았다는 의식을 깔고 있는 것이다. 이는 타지역인의 호남인에 대한 거부감처럼 특정 지역만이 “단순히 싫다”는 편견의 수준이 아니라 구체적 피해와 차별감에 터한 거부감이 영남인에 대한 거부감으로 표현되는 것이다. 한편 이들의 사회적 차별경험은 전국적으로 가장 높으며 차별경험중 가장 커다란 것은 언어적 수준(비난)이라 생각되는 “인간적 모욕”이라고 응답하고 있다. 이는 보다 행위 수준의 차별경험이 낮다는 점과 결부시켜 볼 때 호남인에 대한 편견은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있지만 “비난”의 수준을 넘어선 “회피”나 행위상의 “차별”은 아직은 보편적인 것이 아니라는 점을 시사해준다.

결국 호남인은 높은 경제적, 사회적 차별감을 느끼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비난” 수준의 사회적 차별(편견)을 받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차별감만으로는 호남인이 왜 영남인에 대해서만 거부감을 나타내는지 설명할 수 없다.

IV. 정치적 요인과 영남인에 대한 적대감의 형성

문제제기에서 지적했듯이 호남인의 영남인에 대한 적대감을 설명하는 데는 지역격차에서 비롯된 경제적 차별감과 편견으로부터의 사회적 차별감만으로는 불충분하다. 다시 말해 전국적인 사회적 차별(비난의 수준이 중심적인 차별이었다)과 강원, 충청 지역과 비슷한 경제적 차별을 받은 호남인이 유독 영남인에게만 거부감을 보이는 사실을 제대로 설명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호남인의 영남인에 대한 지역감정 형성에 있어 정치적인 측면의 고찰이 요구되는 것이다. 여기서는 정치과정, 특히 선거과정과 투표에 관심을 기울이고 아울러 광주항쟁이라는 역사적 사건이 지역감정을 불러일으킨 측면을 분석해 보고 그러한 결과 나타나는 진보성에 대하여 논의해볼 것이다.

1. 선거와 투표

역대 대통령 선거에서 지역성이 최초로 드러난 것은 1963년 제5대 대통령 선거(박정희-윤보선)라고 할 수 있고 이것이 본격적인

영·호남 대립구도를 형성하게 된 것은 1971년 제7대 대통령선거(박정희-김대중)부터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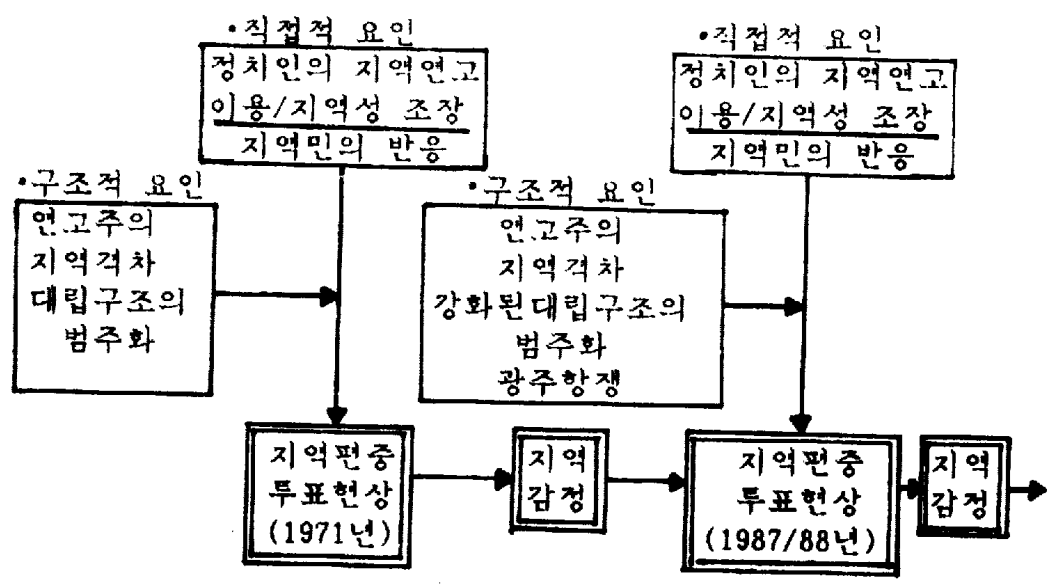
제5대 대통령 선거에서 박정희는 51:49의 근소한 비율로 윤보선에 승리하였는데 그 원인은 출신지인 영남지역에서의 몰표였다. (경북, 경남에서의 박정희:윤보선 투표율은 61:39, 67:33이었다)³⁵ 같은 후보끼리 경합한 제6대 대통령 선거에서 영남 사람들의 지역 편중 투표경향은 훨씬 강화되어서 박정희:윤보선 지지율은 경북이 71:29, 경남이 75:25로 나타났다. 이는 모든 도를 망라했을 때 가장 큰 지지율 차이를 보이는 수치이다. 이와 같은 경상 지역의 지역 연고 투표는 정권유지를 목표로 한 원초적인 지역성에 호소하는 공화당 선거전략이 경상지역민에 반응한 결과로 생각된다. 즉 군정의 실정(失政)과 혁명공약에 위배된 출마라는 결점을 무릅쓰고 당선되기 위한 선거전략의 일환으로 “... 이 고장(출신)의 임금을 여대껏 한 사람도 없었다. 박정희 후보... 를 대통령으로 뽑아 이 고장 사람으로 천년만년의 임금님을 모시자”와 같은 류의 지역성을 자극하는 발언이 유세과정에서 표출되었고 그것이 유권자에게 어느정도 먹혀 들어갔던 것이다(이상우, 1985: 329-330).

그러나 이때의 지역연고성 투표결과는 이에 대립되는 지역적 후

35. 그러나 서울에서는 박정희:윤보선이 32:68의 비율을 보여서 역으로 이를 서울 출신인 윤보선에 대한 지역성의 표출이라고 할 수도 있겠으나 서울은 각 지역 출신인으로 구성되어 있고 타지역에 비해 뚜렷한 지역 정체성이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점에서 여촌야도 현상의 일종이지 지역성에 기반한 현상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보나 지역민이 없었기 때문에 지역갈등으로 연결되지 않았다. 그것은 제7대 대통령 선거부터 시작되었는데 이때의 지역편중 투표와 1987, 88년의 투표는 다소 차이는 있지만 어느정도 공통적인 구조와 요인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지역갈등이라는 측면과 투표·선거를 관련지워 이를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2. 투표와 지역감정



지역편중 투표현상이 발생하는 것은 투표가 오직 정당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점에서 (신광영, 1989: 3) 일차적으로 정당 (또는 정치인) 이 지역연고를 이용하고 조장시켰으며 이에 지역민이 적구

적으로 반응하였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행위가 가능하게 된 구조적 요인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는 크게 세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 첫번째의 것은 한국 사회에 뿌리 깊은 연고주의라고 생각된다. 혈연, 학연, 지연의 끈이 아직 굳게 남아있고 현실적인 조직, 생활원리로 작용하는 상황에서³⁶ “선거승리”를 절대적 목표로 삼는 정당(정치인)이 연고주의를 이용하는 것은 아주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생각한다. 다음으로는 현실적인 지역격차와 불만을 들 수 있겠는데 비단 경제적인 격차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편견, 인사, 정책 상의 지역차별은 차별받는 지역인에게 자გი지역의 차별을 해소해 줄 수 있는 방안의 선택을 원하게 할 것이며 그 선택은 무엇보다도 자기 지역 출신 후보에 대한 지지가 될 것이다. 60년대 말에 제기되었던 “호남 루대접본”은 (이상우, 1985: 332) 호남인들이 느꼈던 차별감을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이며 자기 지역 출신인 김대중에게 집중적인 루표를 하게 만든 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마지막의 구조적 요인은 선거에서 대립구조의 형성과 그에 따른 범주화라고 할 수 있다. 김혜숙은 Tajfel을 인용하여 “우리” “그들”의 구분만으로도 집단간 갈등이 시작된다고 말한다(김혜

36. 홍동식(1989)은 “우리나라 사람들 가운데 평균 2명중 1명 정도가 혈연, 지연, 학연의 연고관계를 통해 현실생활에 상당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실제 연고관계를 생활속에서 이용하고 있다고 본다”라고 여론조사 결과를 밝히고 있다.

수, 1988: 126). 즉 집단구분이 내집단 편들기의 충분조건이 된다는 것이다 (안신호, 1988: 31-32). 이러한 범주화는 선거와 같이 자기정체 (personal identity) 와 사회정체 (social identity) 가 동일시되는 탈계성화의 상황에서 (이수원, 1988: 71) 는 더욱 분명해 질 것이며 더우기 후보자들이 몇 개의 지역으로 구분되고 지역과 동일시되며 그들의 지역적 대표성이 강하다면 범주구분(우리 사람-그들 사람) 은 극명해지고 내집단 선호와 외집단 배척이 한층 더 강하게 일어날 것이다. 1971년의 박정희-김대중 후보의 대결은 투표과정과 결과에서 이와 같은 심리적 구조를 그대로 반영해준 최초의 것이라고 볼 수 있다.³⁷

결국 정치인의 지역성을 이용한 선거전략은 연고주의라는 전통 및 대립구조에 따른 범주화의 결과로서 자기 지역 출신 후보를 선호하는 영호남의 공통적 요인 위에 호남인의 차별감이라는 요소가 겹쳐짐으로써 가능했으며 그 결과로서 지역편중 투표현상을 가져왔다고 할 수 있다. 1971년의 대통령 선거결과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설명이 가능하다.

한편 1987년의 대통령 선거와 1988년 국회의원 선거는 1971년 선거보다 투표결과에 있어 더욱 극심한 지역편중 현상을 나타내었다. 이는 앞서 언급한 구조적 요인은 더욱 강화되고 정치인의 지역연고

37. 이를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해보면 호남인은 자기 지역의 대표자에게 부여하는 집단적 정체감에다 차별감을 해소시켜 줄 수 있는 돌파구로서 김대중을 지지했다고 할 수 있고, 영남인의 경우는 호남인과 공통적인 집단적 정체감에 경쟁자에 대한 견제심리가 부가되어 박정희 지지로 나타났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용이 그대로 남아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요인들이 첨가된 결과라고 생각된다.

호남인들의 차별감은 70년대의 그것보다 더욱 강화되었으리라 예측할 수 있다. 그것은 고도의 경제성장과정에서 부의 절대량은 증가했지만 지역간 격차는 여전히 존재함으로써³⁸(II장 참조) 이들의 상대적 박탈감은 오히려 증가했으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또한 김대중의 경우 1971년 선거의 외집단(영남인)의 대표이며 선거상의 '적'이었던 박정희와, 같은 경상도 출신이며 박정희와 연속성을 갖는 전두환으로부터 지속적인 정치적 탄압을 받아왔고, 그를 대신할 호남출신의 경쟁자가 없었던 상황에서 다시 대통령 후보로 출마했다는 사실은 그에 대한 호남인의 집단적 동일시와 대표성 그리고 그의 권위를 한층 더 강화시켰을 것이다. 더우기 정당구조가 최초로 지역에 기반한 4당체제로 구성되었다는 사실을 고려한다면 호남인의 대립구조와 범주화는 이전보다 강화되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같이 구조적 요인들이 이전보다 강화된 상황에서 광주항쟁이라는 지역성이 연루된 사건과 87년 이전까지의 선거를 통해 누적된 지역감정은 전라지역의 자გი지역 후보지지현상을 증가시킨 새로운 요인이라고 생각된다.

결국 지역성을 자극하는 구조적 기반이 여전히 작용하는 상황에

38. 박점식(1971)이 제시하는 지역별 1인당 주민소득을 보면 서울 63223원, 부산 51209원인 반면 강원 27953원, 충남 27476원, 전북 27293원, 전남 25281원으로서(1966년) 지역 격차가 존재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49) 이같은 지역격차는 이 글의 II장에서 88년에도 여전히 존재함을 밝힌 바 있다.

서 지역편중 투표결과는 서로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되며 상대방에 대한 편견과 투표에서의 자기집단 결속을 강화시켜 준다고 할 수 있다. 이는 곧 기존의 지역감정을 유지·강화하게 된다는 의미이다.

또한 지역감정은 자გი지역 출신후보를 지지하는데 정적으로 관련된다. 이러한 주장의 근거로서 호남인과 타지역인들을 지역감정의 유무로 구분하여 87년, 88년 투표행위를 분석해보면 지역감정이 있는 사람들은 없는 사람들에 비해 자გი지역 출신후보 지지율이 증가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표14참조)

즉 호남인의 경우 영남인에게 거부감을 보이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호남인에 비해 김대중 지지율은 더 높고 노태우 지지율은 더 낮으며 호남 이외의 타지역 출신인의 경우 호남인에게 거부감을 보이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김대중 지지율은 더 낮고 노태우 지지율은 더 높다. 이 경향은 평민당, 민정당 지지에서도 똑같이 나타난다.

표14. 지역감정 유무에 따른 투표행위

단위 (%)

투표	구분	호남출신인		t 값	타지역인		t 값
		영남인에게 거부감을 보이는 호남인	영남인에게 거부감을 보이지 않는 호남인		호남인에게 거부감을 보이는 영남인	호남인에게 거부감을 보이지 않는 영남인	
대통령 선거	노태우	8	14		51	42	
	김영삼	2	2		30	30	
	김대중	88	79	2.45*	3	9	-3.84*
	김종필	2	4		12	13	
	기타		1		4	6	
	계	100	100		100	100	
국회의원 선거	민정당	4	14		41	36	
	민주당	1	5		27	28	
	평민당	89	73	3.60*	3	9	-3.84*
	공화당	2	2		18	17	
	기타	2	2		3	9	
	계	100	100		100	100	

* : $p < .05$

결국 지역감정 자체가 지역편중 투표현상의 원인은 아니지만 그것을 강화시켜주는 기폭제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지역편중 투표현상은 그것을 가능케한

정치인의 이용, 조장과 그 기반인 구조적 배경에 터하고 있으며 그 결과 나타난 지역감정은 다른 새로운 요인들과 함께 다시 지역편중 투표결과를 낳게하는 요인으로 작용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현재와 같이 구조적 배경이 유지되고 지역감정이 강화되어 있는 시점에서 지역에 기반한 선거전략과 투표결과는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고 하겠다.³⁹

2. 광주 항쟁

광주 항쟁이 일어나게 된 요인에 관한 논의는 이 글의 범위를 벗어나지만 요인중의 하나로 지적할 수 있는것은 1980년 5월 18일의 김대중 구속이 광주항쟁의 도화선이 되었으리라는 점이다.

이 점은 김대중이 호남지역에서 차지하고 있던 위상-(호남지역인)누적된 불만은 마치 가난한 집안에서 법관이라던가 높은 사람이 나와서 불우한 집안사정을 일변시켜 주기를 바라는 무력한 아버지의 기대와 마찬가지로, 우리집안에서도 내고장에서도 인물이 하나

39. 실제로 1989년 8월 18일 실시된 영등포 을구 국회의원 재선거에서는 이 선거가 서울지역의 선거이며 뚜렷한 대립구조가 표출되지 않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역편중 투표현상이 나타났다. 영등포 을구 거주민 중 영남출신의 60.6%가 민정후보를 지지했고 호남출신의 61.6%가 평민후보를 지지했다. 특히 평민후보의 표 구성은 호남출신 61.6%, 호남연고 12.9%, 무관계 25.5%로 직,간접으로 호남에 관련된 표가 74.5%에 이르렀다 (박종선, 1985 : 205)

나와야 한다는 민중적 열망으로 집약되었다. 전남출신인 김대중의 대통령 출마와 좌절, 그가 받은 고난과 역경은 이들의 보편적 경험들과 합치되면서 1980년 이후에는 그가 호남의 대중적 영웅으로서 호남민중들의 가슴속에 가득차기 시작 했다. (전남 사회운동협의회, 1895: 20)-이나 광주항쟁 당시 시민의 호응을 불러 일으켰던 최초의 구호 - “김대중씨가 체포 되었습니다.”(윗글: 37)-로 마무리 될 때 본명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즉 광주 항쟁은 그 발단에서 부터 지역성을 가지고 있었다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은 반 독재 활동의 중심적 인물이며 호남인의 상징적 대표자로 간주되면 김대중이 군부 쿠데타로 정권을 장악한 이들에 의해 구속 됨으로써 한편으로는 민주화의 열망에 대한 기대가 다른 한편으로는 “농촌 사회로서의 낙후감과 그 반비례로 근대화에 대한 불만을 김대중의 집권에 걸었던 대중들의 기대가 무참히 배신당했다”(윗글: 37)는 점에서 일 것이다. 이점은 항쟁기간동안의 지속적인 구호가 “계엄 해제”, “전두환 퇴진” 뿐만아니라 “김대중 석방” 이었다는 점에서도 입증된다. (전남 사회문제 연구소, 1987: 121,172,174)

이러한 지역성은 항쟁 가운데서 경상도에 대한 지역 감정으로 증폭되었는데 그것은 유언 비어 었던 실제 발언이었던 간에 “경상도 군인이 전라도 사람의 지를 말리러 왔다는 유언비어가 퍼져 . . .” 라는 계엄사령부측 발표나 (윗글:173) “ 광주출신의 70%를 죽여서라도 진압하라는 명령을 받았다고 22일 생포된 공수부대원이 자백” “소령 지휘관이 전라도 새끼들은 모조리 죽어야 한다고 부하들을

목어 ” 했다는 목격자의 일지 (윗글: 181) 에서처럼 지역감정을 자극하는 말들이 공공연히 퍼져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소문이 실제로 광주 시민에게 어떻게 작용했는 가는 아래의 기록이 잘 보여준다.

“5월 19일 오후 7시쯤 광주 고속버스 터미널 부근에서는 . . . 천 여명의 시위대가 경상남도 넘버를 달고있던 8톤 트럭 1대를 붙잡아 버렸다 . . . 군중들은 운전수도 경상도 사람이니까 죽여버리자고 흥분했지만 . . . 그운전수가 무슨 죄가 있겠느냐 . . . 는 설득에 모두 물러났다.” (전남사회운동 협의회, 1985: 75)

이와같은 소문과 사건을 배제하더라도 경상도 출신인 전두환으로 대표되는 정권이 호남의 상징인 김대중을 탄압 했다는 사실만으로도 경상도에 대한 적대감이 짝볼 소지는 충분이 있는 것이다.

결국 광주항쟁은 그 발단과 전개과정을 통해 호남인에게 영남인에 대한 거부감을 불러 일으킨 결정적 계기였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한 결정적 근거로서 80년 이전에 연구된 지역관계 논문에서는 호남인이 영남인에 대한 뚜렷한 적대감을 나타내진 않는다는 점을 제시 할 수 있다. 더구나 김진국의 1977년에 조사한 결과는 호남인들이 자기자신들 이외에 제일 좋아하는 지역민은 “영남인” 이하는것이 나타난다. (김진국,1977:29) 실제로 “광주 항쟁 해결이 지역 갈등 해소에 얼마나 도움이 될 것인가 ” 라는 질문에 호남인의 32.8% 가 “ 크게 도움이 된다 ” 고 응답하여 67.6%가 광주 문제의 해결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피해자 보상등) 이

지역 갈등의 해소에 도움이 되리라고 응답하고 있다. 그러나 호남에 대한 편견을 가진 이들에게 동일한 질문을 하면 “크게 도움이 된다”는 응답이 호남인의 반인 16%의 응답율을 보이고 있다.⁴⁰ (도움이 된다는 모두 54.4%) 이는 광주지역을 중심으로 일어났던 광주 항쟁이 호남 사람 모두에게 해소 되어야 할 공통적 문제로 다루어 진다는 점과 더불어 이들의 영남사람에 대한 거부감이 광주 문제나 지역 차별같은 구체적인 사건의 해결로 어느 정도 해소 될 가능성을 시사해 준다고 하겠다. 그러나 현실적인 피해감이 해소 되지 않은 채 불만과 차별을 야기하는 요소들이 그대로 남아있다면 이들은 좀 더 진보적인 의식과 변혁운동에의 적극적인 참여를 나타낼 가능성을 가질 수 있다.

3. 집단간 보수-진보성

1) 변혁운동과 통일문제, 노동자들의 대우에 대한 태도

호남인과 이들에게 거부감을 보이는 타 지역인들에게 변혁운동과 통일문제 등에 질문을 던지면 호남 출신인이 타지역인보다 모든 응답에서 변혁에 긍정적이고 진보적인 태도를 보여준다.(표 15)

40. 응답결과는 아래와 같다.

문항		호남인	호남인에게 거부감을 보이는 타지역인
광주사태 해결이 지역갈등	크게 도움이 된다	32.8	16.0
	다소 도움이 된다	34.8	38.4
해소에 도움이 될까?	그저 그렇다	12.7	21.4
	별로 도움이 안된다	7.7	11.3
	전혀 도움이 안된다	3.2	2.9
	모르겠다	8.8	10.0
	계	100	100

$$\chi^2=42.8 > 20.5 \text{ (c.v.; } \alpha=.001)$$

표 15. 호남인과 이들에 거부감을 보이는 타지역인의 학생 운동, 통일 문제, 노동자에 대한 평가.

구분		단위 %		χ^2	
		호남인	호남인에게 거부감을 보이는 타지역 출신인		
문항	학생 운동에 대한 평가	과격하다	56.9	79.6	68.6***
		보통이다	24.5	11.3	
		온건하다	11.0	5.3	
		모르겠다	7.6	3.8	
		소 계	100	100	
노동자들의 노사 분류시 행동평가	노동자들의 노사 분류시 행동평가	과격하다	55.6	70.0	40.2***
		보통이다	23.6	16.0	
		온건하다	12.9	10.3	
		모르겠다	7.9	3.7	
		소 계	100	100	
노동자들이 받는대우	노동자들이 받는대우	의식주 감당이 힘들	17.0	10.7	17.3***
		최소의 의식주 유지	60.9	57.9	
		저축까지 가능	20.2	30.2	
		모르겠다	1.9	1.2	
		소 계	100	100	
통일 문제	통일 문제	어떻게든 빨리 되야	41.2	23.8	46.5***
		여건성숙을 기다림	44.2	52.2	
		이대토가 좋음	1.7	4.1	
		통일은 불가능	6.9	15.4	
		모르겠다	6.0	4.5	
		소 계	100	100	

*** : $p < .001$

호남인은 학생운동이나 노사 분류에서 학생과 노동자의 행동이 과격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호남인에게 거부감을 나타내는 사람들에 비해 뚜렷이 적다. 또한 통일 문제도 “어떻게든 빨리 통일이 되어야 한다” 라고 응답한 비율이 호남인의 경우 이들에 거부감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응답한 비율에 비해 두 배 (41.2%) 에 이르고 있다. 또 “노동자들의 대우” 라는 하나의 현상에 대해서도 호남인은 “의식주를 감당하기 힘들다”는 응답에 17.0% 가 응답하고 있다. 반면 호남인에게 거부감을 보이는 사람들은 10.7% 에 그치고 있다.

이와같이 호남인이 이들에 대립하는 (지역감정을 가진) 타도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사회운동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며 통일에 대한 열망을 보이고 노동자들의 대우에 부정적 시각을 보이는 것은 앞서 언급했듯 지역 감정이라는 지표를 통해 드러나는 호남인의 피해의식과 차별감이 현실에 대한 진보적 태도로 나타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는 한국 사회에서의 모순이 다른 여러 수준과 더불어 지역 수준에서도 발생하며 이러한 지역단위의 모순인식이 현실에 대한 진보성과 연결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다.

2) 학생 운동의 참여도

호남인의 의식이 타 지역인의 그것보다 더 진보적이라면 변혁운동에의 참여도도 다른 지역인에 비해 더 강렬하게 나타날 수 있다. 87년 12월 5일까지의 집시법, 국가보안법, 반공법 위반자들 중 구속 당시의 직책이 재학생, 지적생, 졸업생으로 기록된 사람들을 지역별로 구분해 보면 다음과 같다.

표16. 1987년 12월 5일까지 학생운동, 노동운동
관련 구속자의 출신대학 분포

단위: 명 (%)

대학 소재지	학생운동/노동운동 관련 구속자	
	대학별 구속자 수	합 계
서울	서울대 : 139 고려대 : 72 연세대 : 43 기 타 : 143	397 (80.2)
전라	전남대 : 18 조선대 : 18 기 타 : 15	51 (10.3)
경상	부산대 : 18 경북대 : 8 기 타 : 15	38 (7.7)
기 타	인하대 : 3 충남대 : 2 기 타 : 4	9 (1.8)
		총 495명 (100%)
대학미상/노동자		413명
		계 908명

자료 : 민주화 실천 가족운동 협의회, '전국 구속자 현황'
(1987.12.5) 구속 청년 학생운동 협의회 '인권백서'
(1987.8.15)로부터 종합, 구성

전체적으로 출신대학이 파악된 495명의 구속자 중 397명 (80.2%) 서울소재 대학교의 재학생, 재적생, 졸업생으로서 서울지역에 구속자가 편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들은 출신지에 따라 제 분

류되어야 하나 자료의 한계로 여기서의 분류 불가능 하다.

따라서 비교대상이 되는것은 지방 대학교와 연고 (제학, 제적, 졸업) 를 가진 구속자의 본포이다. 이는 간접적이거나 지역별 운동이 어떤 강도로 발생하는가를 보여줄 수 있다. 왜냐하면 지방대학의 구성원은 대개 그 지역 출신으로 생각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역별로는 전라지역 대학교 출신들이 경상지역 대학교 출신자들과 함께 구속자의 대다수를 차지한다. (서울지역 구속자와 이들을 합치면 전체 구속자의 98.2%가 된다) 이 중 전라지역의 경우가 경상 지역보다 더 많은 구속자를 내고 있다. 이를 더 정확히 비교하기 위해 전라, 경상지역의 대학생 수를 보면 전라지역이 12만 6485명, 경상지역이 26만 5044명 이다.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 1987) 이는 대학생 수가 전라지역보다 두 배 이상인 경상 지역이 구속학생 수에서는 전라지역의 75% 수준에 머문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는 다른 지역 (서울 제외) 의 구속자 수가 극히 미약하다는 사실과 겹부해서 생각해 볼 때 전라 지역은 지역 학생운동이 절대적으로나 상대적으로나 강렬한 곳이라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나 자료의 성격상 누락된 구속자가 있고 본적이 학생 출신 구속자와 지방 대학에 한정 되었기 때문에 호남 지역이 진보적 운동 참여율이 높다는 일반화를 하기에는 아직 무리가 있다. 그러나 높은 진보성과 위에서 나타나는 학생운동의 지역적 강렬함은 호남인의 변혁운동 참여율이 높은 것이라는 가능성을 매우 높게 보여주는 것이다.

4. 소 결 (小 結)

앞서 분석한 지역과 계층, 사회적 차별과 관련지워 정치가 지역 갈등에 작용한 부분을 정리한다면 아래와 같다.

1) 지역감정이 집단적으로 발생한 직접적인 요인은 정치가들이 선거 과정에서 득표 전략의 일환으로 지역과 지역감정을 이용하고 조장시켰기 때문이다.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한국사회의 뿌리깊은 연고주의와 경제적, 인사정책적 지역격차 때문이었고 더불어 심리학적 측면에서 볼때 선거라는 집단적 행위가 한국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지역간 대립 구조를 형성했고 지역인들이 자გი지역 출신 대표자를 자신과 동일시 함으로서, “우리”와 “그들”이라는 범주화를 선거 과정에서 형성했기 때문이다. 이와같은 지역 대립은 1987년, 88년 선거에서 더욱 극명하게 나타났는데 이는 호남인의 경우 지역대립을 가능케한 연고주의, 경제적, 인사정책상의 차별과 편견, 선거를 통한 대립구조라는 기존의 요인들이 유지되었고 계속된 지역격차를 통해 상대적 박탈감이 증가했고 김대중의 대표성과 권위가 강화되고 지역당이 출현함으로써 대립구조 또한 한층 강화되었으며 여기에 광주 항쟁이라는 지역감정을 증폭시킨 사건이 결합 됨으로써 발생한 현상인 것이다.

2) 광주항쟁 발생의 요인중 하나는 호남인의 현실적, 상징적 대표자였던 김대중의 구속에 있었으며 이러한 사실은 “김대중씨가 체포되었습니다” 라는 항쟁당시 최초의 구호와 “김대중 석방” 이라는 항쟁기간동안의 지속적인 구호 속에서 입증된다. 이같은 지역성은 항쟁의 대상이요 적이 경상도 출신인 전두환 정권이라는 점과 항쟁 과정에서의 지역감정을 자극하는 소문과 발언이 난무하였다는 사실로 인하여 경상도에 대한 지역감정으로 증폭되었다. 그러나 호남인의 지역감정은 광주항쟁이나 지역격차, 사회적 차별같은 보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피해에 터하고 있으므로 문제가 해결된다면 감소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불만과 차별감, 피해의식을 야기하는 요소들이 유지되거나 강화된다면 이들의 의식과 태도 그리고 행위는 현실 비판적으로 작용할 소지가 크다.

3) 호남인의 의식은 변혁운동과 통일운동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 그들에게 거부감을 보이는 전국 사람들 뿐만 아니라 거부감이 없는 전국 사람들에 비해서도 훨씬 진보적이며 변혁운동의 하나인 학생운동에서도 서울을 제외한 모든 지역 중에서 가장 높은 구속율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지역차원에서의 변혁운동이 호남지역에서 강력하다는 하나의 지표가 될 수 있으며 차별과 불만의 수준이 높은 지역인과 지역출신인이 변혁에 적극적일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V. 결 론

1. 호남인의 영남인에 대한 지역감정

호남인의 영남인에 대한 지역감정은 최소한 1950년 부터 시작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는 호남인의 인성에 대한 전국적인 편견⁴¹, 1960

41. 이는 지역갈등의 두 측면 중 호남인의 영남인에 대한 지역감정 이외의 나머지 한 측면이다. 이 측면에 대해 제기할 수 있는 질문, 즉 “왜 호남인의 인성에 대해 전국적인 편견이 발생하였는가”라는 질문에 답하는 것은 이 글의 범위를 벗어나지만 그 원인에 관련된 두 가지 추측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첫째, 호남인에 대한 편견이 언제부터 대중적으로 퍼지게 되었는가 라는 점은 1장에서 살펴보았듯이 확인하기 어려운 것이지만 적어도 엘리트의 수준에서는 고려이후부터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으며 편견이 본격화한 시기는 제3공화국 이후로 상정할 수 있다. 이는 제 3 공화국 성립이전과 이후의 편견에 대한 연구(김혜숙 1959; 고흥화 외, 1975 ; 김진국, 1977 등)를 근거로 추단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제 3 공화국 이래로 확산된 편견의 원인은 근부쿠데타로 집권한 정통성과 정당성이 결여된 집권층이 이데올로기적으로 지역성을 이용했다는 사실에 근거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즉 집권세력의 유지와 도전세력의 견제를 위한 방편으로서 호남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이데올로기적으로 조장시킬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하나의 근거로서 호남인에 대하여 가장 높은 거부감을 보이는 사람들은 선거에서 대체로 친여지역인 강원, 제주, 경상 지역 출신이었다는 분석결과(3장)를 제시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이데올로기적 설명은 이데올로기적 편견유포가 어떤 기제를 통해서 어떻게 전파되었다는 사실이 제시될 때 설득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둘째로 일단 호남인에 대한 편견이 형성되면 그것은 경험적인 과정을 통해 유지 혹은 강화된다는 것이다. Allport는 “어떤 사람에 대한 심리적 범주가 완고하게 되면 그 범주의 속성들은 불변이며

년대 이래 경제개발상의 격차와 1970년대에 심화된 인사, 정책상의 차별이라는 요인들이 지속적으로 존재한 가운데 1971년 이래의 선거과정을 통해 형성된 것이며 여기에 광주항쟁이라는 사건이 결합됨으로써 결정적으로 촉발된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는 문제제기에서 지적했듯이 호남인이 영남인에 대해서 거부감을 나타내는 것은 선거과정과 광주항쟁이라는 정치적 요인을 배제하고서는 온전히 설명할 수 없다는 사실, 즉 정치적 요인의 직접적 역할이 호남인의 영남인에 대한 지역감정 형성에 결정적인 것이었다고 파악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치적 요인이 호남인의 영남인에 대한 적대감을 형성시킬 수 있었던 것은 호남인에게 경제적, 인사정책적 차별감과 전국적으로 가해지는 편견이 존재했고 이것이 정치적 요인과 쉽게 결합할 수 있는 토대가 되었기 때문이다. 또 호남인의 영남인에 대한 지역감정을 야기시키는 정치, 경제, 사회적 요인들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호남인의 경제적, 사회적 불만은 정치과정을 통하여 결집, 표현되며 때로는 상승

그에 반대되는 증거는 거부된다”(Allport, 1980: 172) 고 말한다. 2차적 인간관계가 지배적인 도시생활에서 “불신”은 일반적인 현상일 수 있는데, 호남인에 대한 편견의 내용이 불신이라는 범주라면 똑 같은 불신을 경험하더라도 호남인으로 부터의 그것은 한층 강렬하고 호남인에게는 당연한 속성으로 간주될 수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 호남인에 대한 편견의 주 내용이 “불신(믿을 수 없다, 배신을 잘한다)” 이라면 “불신”을 주는 사람이 다양한 지역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호남인에게서 불신을 경험한 경우에는 호남인은 원래 “믿을 수 없다”는 편견과 합치되어 이 편견이 유지, 강화된다는 것이다. 이렇게 형성된 편견은 편견을 가진 사람이 자신이 그것을 직접 경험하였다는 “경험적 믿음”으로 인하여 변화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되는 것이다. 또 호남인의 낮은 경제적 지위는 호남인에 대한 편견을 적어도 지속시켰을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또 역으로 호남인에 대한 편견이 광범위하게 존재한다면 그것은 호남인의 경제적 지위상승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것이다.

한편 호남인이 영남인에 대하여 갖는 지역감정의 성격은 호남인이 경제적, 인사정책적, 사회적으로 차별 받았다는 불만과 피해의식의 토대위에서 정치과정을 통해 영남인에 대한 거부감으로 변형된 것이기 때문에 불만과 차별감의 성격이 강한 반면 호남인에 대한 타도인의 지역감정처럼 영남인의 인성에 대해 거부감을 보이는 측면은 매우 미약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호남인의 영남인에 대한 지역감정은 현실에 대한 불만의 변형된 표현이며 불만의 한 부분(집합)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호남인들이 공통적으로 갖는 지역적 정체감은 영남인에 대한 지역감정이 아니라 현실에 대한 불만과 비판의식이라고 생각된다.

2. 호남인의 차별감이 갖는 위상과 함의

지역감정이나 지역갈등이 문제가 된 것은 주로 선거과정을 통해서였다. 이것은 지역갈등의 기초가 되는 현실적인 계 요인들이 외에도 “선거”라는 정치과정 자체가 범주를 단순화 하고 대립구조를 형성시키며 지역대표와 지역인을 동일시하는 유권자의 심리적

구조를 자극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사회에서 지역감정이나 지역갈등은 선거때 가장 그 극렬한 모습을 보였다. 그렇지만 실제생활 - 즉 결혼,교우 관계등 -에서의 지역갈등은 선거에서처럼 강렬한 것이 아니며 따라서 지역감정을 선거과정을 통해 과장(inflate) 되는 특성을 보여준다.

그런데 호남인의 지역감정은 타도인의 호남인에 대한 지역감정에 비해 심리적 편견의 측면은 적고 실제적인 사실로서의 차별에 근거를 둔 것이기 때문에 선거과정을 통해 과장되는 측면도 가지고 있지만 그 보다는 현실적 불만이 선거를 통해 표출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현재와 같은 지역연고에 기반한 정당체제에서 자기집단(호남인)의 불만을 편파적인 자기지역 후보 지지를 통해 해소하려고 하는 것은 호남인들에게 아주 합리적인 선택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결국 현실의 차별에 근거를 두고있고 정치과정을 통해 표출되는 호남인의 불만은 그것이 정당과 정치를 통해 “제도화” 되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측면을 가지고 있지만 호남인들의 내집단 편파가 다른 지역인들에게 새로운 거부감을 형성시키고 편견의 강화를 야기시킴으로서 지역간 분열이 심화될 가능성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지역갈등이라는 문제는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호남인이 느끼는 경제적,사회적,인사 정책적 차별감이라는 요인과 지역에 관련된 정치제도와 정치과정이라는 요인의 변화에 따라 그 양상이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 된다.

Hirschman은 자신이 몸담고 있는 조직에서 개인이 불만을 느낄 때 그 조직의 구성원들은 조직을 탈출(Exit)하거나, 오히려 조직에 충성(Loyalty)하거나 아니면 불만의 표현으로서 항의 (Voice)를 하게 된다고 주장한다. (Hirschman, 1969 : 4-5)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호남인과 같이 자기집단에 대해 부정적 평가를 받고 차별감을 강하게 느끼는 집단에게는 위의 세 가지 선택이 모두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호남인이 자기 집단으로 부터 탈출(exit) 하는 것은 서울로의 호적이동과 사투리 사용을 스스로 금하는 데서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김혜숙의 연구에서는 호남 출신중 본적을 서울, 혹은 타 도로 옮기는 사람이 영남 출신중 본적을 옮기는 사람들의 수에 비해 두 배가 넘는다는 사실이 발견된다. (김혜숙, 1989: 133) 그런데 이러한 탈출(exit)은 결코 완전한 것이 될 수 없다. 그것은 호남인에게 호남이라는 지역과 그곳에 대한 귀속의식이 여전히 남아있을 것이며 완전히 타도사람으로 귀속되기는 어렵다는 사실 때문이다. 따라서 두 번째 선택인 충성(loyalty)은 차별감을 느끼는 모든 호남인 뿐 아니라 호남인들 중 탈출(exit)을 경험한 사람에게도 나타날 수 있다. 그것은 탈출(exit)해 있지만 충성(loyalty)할 수있는 기회 구조인 선거를 통해 나타난다. 선거에서의 자გი지역후보 지지를 통한 내집단 충성은 자გი지역 후보의 당선에 궁극적으로 호남인이 받는 차별감의 해소에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보다 근원적인 불만 해결의 방안으로 작용할 수 있

는 것이다. 이와 같은 충성은 호남인의 경우 1971년, 1987, 88년의 선거결과에서 강하게 나타났으며 이 사실은 자기집단과 대립집단을 “우리”와 “그들”로 범주화하고 지역대표와 자신을 동일시 하는 기본적인 심리적 구조이외에 불만을 해소 할 수 있는 하나의 선택인 내집단 충성(loyalty)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이러한 충성은 탈출(exit)을 경험한 사람들도 아무런 비용없이 선택할 수 있는 기회 구조이기때문에 호남이외의 지역에서도 호남인의 높은 내집단 편파 투표 현상이 가능하다고 본다.

한편 마지막 선택인 “저항”은 호남인들에게 진보적 사회운동에의 참여로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달리 표현하면 차별감과 불만을 강하게 느끼는 이들에게는 현실의 모순에 대한 접근과 비판도 빨리 진행된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단편적인 것이지만 이 글에서 확인되었듯이 호남인이 학생운동에 대한 높은 참여율을 보인다는 사실은 공통적인 차별감을 갖는 호남인이 그 선택의 하나인 “저항”으로서의 진보적 사회운동에 있어서도 타도 출신에 비해 높은 참여율을 보일 가능성을 보여준다.

결국 호남인은 자신들이 느끼는 정치, 경제, 사회적 차별감과 불만의 표현과 선택으로서 탈출(exit), 충성(loyalty), 저항(voice)의 세 선택을 하고 있으며 이러한 선택은 선거를 통한 제도내의 변화나 진보적 사회운동과 같은 비제도권적 변화에서 다같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 따라서 한국사회의 변동을 설명하고 예측하는데 있어 “계급”이라는 기준을 사용하는 것 뿐만

아니라 “지역”이라는 기준을 사용하는 것 또한 현실에 대한 정확한 인식에 기여하는 바 크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참 고 문 헌

I. 자 료

- 한국 사회학회, 1988, 『지역발전연구』 (설문조사자료)
-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 1970,
『총 인구및 주택조사 보고 제 2권 인구이동』
, 1980,
『인구 및 주택 센서스 보고 2권 인구이동』
, 1985,
『인구 및 주택 센서스 보고 제 2권 인구이동』
- 경제기획원, 1987, 『한국의 사회지표』
- 민주와 실천 가족운동 협의회, 1987.12.5 『전국구속자 현황』
- 구속청년학생협의회, 1987, 『인권백서』
- 서울시, 1979, 『저소득 시민의 생활실태에 관한 기초조사와
정책방향에 대한 연구』
- 전남사회문제연구소, 1988, 『5.18 광주민중항쟁 자료집』
(도서출판 광주)
- 조선일보사, 1988, 『1987년 대통령선거 자료집』

II. 논문 및 단행본

- 고 흥 화, 1989, “자료로 엮은 한국인의 지역감정”, (성원사)
- 김 진 군 외, 1986, 『한국사회의 계급연구』 (한울)
- 김 진 국, 1977, “한국 대학생의 지역적 편견연구” 『전국대학
생 학술 연구 발표 논문집 (사회과학 분야)
제 2집』
- 1987, “영호남 대학생의 상호간 차이지각 연구”
『사 회 심리학』 제 3권 2호
- 1989, “지역감정의 실상과 그 해소 방안” 『심리학
에서 본 지역 감정』, (성원사)
- 김 만 흠, 1987, “한국사회 지역갈등 연구-영호남 문제를 중
심으로”, 현대사회 연구소
- 김 문 조, 1989, “지역주의의 형성과 성격”, 한국사회학회
주최 지역갈등 세미나 발표논문
- 김 용 학, 1989, “엘리트 층원에 있어서의 지역 격차:미시적
동기와 거시적 결과”, 상 동
- 김 익 기, 1989, “지역감정 해소방안: 여론 조사 결과에 근거
하여”, 상 동
- 김 혜 숙, 1988, “지역간 고정관념과 편견의 실상” 『심리학
에서 본 지역감정』, (성원사)

- 나 간 채, 1989, “지역간의 사회적 거리감”, 한국사회학회
주최 지역갈등 세미나 발표논문
- 문 석 남, 1984, “지역격차와 갈등에 관한 한 연구”,
『한국 사회학』
- , 1985, “지역갈등과 지역격차”, 『한국사회와 갈등
의 연구』, 현대사회 연구소
- , 1989, “지역격차의 역사적 배경:해방으로부터
1960년대 까지를 중심으로” 한국사회학회
주최 지역갈등 세미나 발표 논문
- 박 동 운, 1988, “영호남 갈등, 인사와 이권의 불균형”
『월간 경향』 7월호
- 박 점 식, 1971, 『한국인의 지방의식에 관한 연구』, 연세대
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박 종 선, 1989, “본업야권의 한계 부각시킨 永乙 선거”
『월간 중앙』 10월호
- 송 복, 1988, “지역갈등의 구조적 요인-지역이동의 특성을
중심으로”, 『한국 정치학회보』
- 1989, “지역갈등의 역사적 설명”, 한국사회학회
주최 지역갈등 세미나 발표논문
- 신 광 영, 1989, “투표행위와 지역주의”, 상 동
- 안 신 호, 1989, “집단 고정관념 형성에 있어서의 감정과
지성의 효과”, 『심리학에서 본 지역감정』

(성원사)

- 오 세 철, 1982, 『한국인의 사회심리』, 박영사
- 유 석 춘, 1989, “지역차별의식, 계층의식, 그리고 사회변혁 운동”, 한국사회학회 주최 지역갈등 세미나 발표논문
- 유 한 성, 1977, “우리나라의 지역격차에 대한 소고”, 『조기준 박사 회갑기념 논문집』
- 이 갑 윤, 1988, “제 13대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투표형태와 민주화”, 경남대 극동문제 연구소
- 이 상 우, 1985, “비극의 유산, 불신과 지역감정”, 『신동아』 10월호
- 이 수 원, 1988, “집단간 고정관념의 형성과 변화과정”, 『심리학에서 본 지역감정』 (성원사)
- 이 이 화, 1983, 『한국의 파벌』
- 이 진 숙, 1959, “8도인의 성격특성에 관한 선입관념”, 『사상계』 12월호
- 이 진 환, 1988, “부산지역인의 타지역인에 대한 인상과 태도”, 『심리학에서 본 지역감정』 (성원사)
- 전 광 희, 1989, “한국사회의 인구이동과 지역갈등의 구조”
한국사회학회 주최 지역갈등 세미나,
발표 논문
- 전남사회운동협의회, 황석영편, 1985,

- 『죽음을 넘어 시대의어둠을 넘어』 (풀빛)
- 전 병 재, 1989, “한국의 지역주의와 지역갈등”, 한국사회
학회 주최 지역갈등 세미나 발표논문
- 조 경 근, 1987, “영호남 지역감정 연구-광주 및 대구 대학
생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중심으로”,
『월간조선』 9월호
- 조 병 희, 1989, “사회서비스의 지역격차:의료를 중심으로”
한국사회학회 주최 지역갈등 세미나
발표논문
- 차 종 천, 1989, “세대간 사회이동의 지역차이”, 한국사회
학회 주최 지역갈등 세미나 발표논문
- 한국 기독교 사회문제 연구원, 1987,
『군부독재 종식과 선거투쟁』 (민중사)
- 한 상 진, 1989, “탈 지역정치의 잠재력과 민주발전:학습이론
의 관점에서”, 한국사회학회 주최 지역
갈등세미나 발표논문
- 홍 동 식, 1989, “연고주의와 지역감정”, 한국사회학회 주최
지역갈등 세미나 발표 논문
- 홍 두 승, 1983, “한국사회계층 연구를 위한 예비적 고찰”,
『한국사회의 전통과 변화』 (범문사)
- 홍 성 웅, 1987, “경제성장에 나타난 지역격차의 원인분석”,

『한국사회의 계문제』 (민음사)

Allport, G. W. , 1954, 『The nature of Prejudice』 (Boston:
The Beacon Press)

Blau & Schwartz, 1984, 『Crosscutting Social Circles』
(Academic Press, Inc)

Hirschman, A. O., 1969, 『Exit, Voice, and Loyalty (Harvard
Univ. Press)

Abstract

A study on the antagonism of Honam against Yeongnam

Kim Jin Hyuk
Department of Sociology
The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This thesis aims to explain one aspect of regional conflict in Korea, i.e., the antagonism of Honam (southwest province) people against Yeongnam (southeast province) people. Three steps are taken to draw a causal explanation for the antagonism.

First, nation-wide inequality structure measured by education, occupational prestige, employment status, and income is analyzed to find regional variations. It is found that not only Honam people but also Chungcheong (midwest) and Gangwon (mideast) people are equally disadvantaged.

Second, since social inequality structure shows no unique differences for Honam compared with Chungchung and Gangwon, there must be other factors contributing to the antagonism of Honam against Yeongnam. Culturally determined prejudice

pattern among Korean people shows that Honam people are psychologically disliked by all the other regioners.

Third, though there exists structural inequality and nation-wide prejudice, we still need to point out why the object of antagonism of Honam should be Yeongnam. I argue to introduce political dimensions to explain the problem. Election campaigns taken by opposition as well as ruling parties are found to be responsible for the articulation of the antagonism. This phenomena is attributable to the fact that Yeongnam franchised party has been in power for the last half century. Especially the 1980 Kwangju Uprising stands for the symbol of political struggle of Honam people against Yeongnam people. This is why Honam people have more progrssive and critical attitudes on political issues, and have higher attendance on social movements to reform existing social structure.

Honam people who have negative self image due to a nation-wide discrimination show three alternatives of action. They are first, to exit from in-group identity (e.g., to change registered origin of region); second, to show in-group loyalty (e.g., ingroup favoritism in election); and third, to voice loudly (e.g., attendance on radical social movement).